



‘허세욱 열사를 가슴에 묻고’



▲ 한미 FTA 저지를 외치며 분신하신 허세욱 열사가 끝내 4월15일 숨을 거두셨고 많은 시민단체 성원들의 애도속에 4월18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 묻히셨습니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의견서 · 일심회사건 결심공판을 보고 · 5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4월혁명회 노중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진
걸 · 8 /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 유성기업업기준님 형 엄기현 임미영 · 12 / 감옥에서 온 편지 · 정창윤 외 3인 · 16 / 현장소식 · 한미안합상륙전훈련 반대
집회에 다녀와서 권오현 · 19 / 이란회원 · 광화문 거리이득형 · 21 / 회원마당 · 3월 산행기 이병건 · 23 / 알립니다 · 25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6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8 / 재정보고 · 39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40

☎ 민기업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 yangsimu@hanmail.net

통일부와 적십자사는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제 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2006년 7월 13일 제 19차 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끝나면서 남북사이 모든 당국자 대화가 끊긴지 7개월만이였다. 그리고 기대만큼 속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서 얼어붙었던 남북 당국사이 숨통을 트이면서 밀렸던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당국 사이 대화는 화해협력과 자주통일로 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으로, 8천만 온겨레의 희망이고 기대였지만 특히 책임있는 당국 사이 대화를 누구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본의아니게 대결하면서 남과 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과 분단을 거부하고 자주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이다. 이들은 다같이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인도주의 사업의 실천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20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 제 4항에서는 이러한 인도주의 협력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미 지난 2월 27~29일 동안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하였으며 오는 5월 초에는 '제 15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이 3월 21일에 시작되었으며 제 18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오는 4월 10~1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고 여러 가지 인도주의 현안과 함께 이미 지난 2005년 9월 16일 제 16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을 협력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장기수(2차) 송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 당사자들을 실망케 하였다. 다 알려졌듯이 6.15 공동선언 제 3항에서는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 사업을 열어 나가기로 했었다. 때문에 세삼스럽게 장관급 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새롭게 합의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는 1차 송환(2000년 9월 2일)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통일부 관계자는 송환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있는 한 2차 3차 송환도 가능하다고 했으며 남쪽에 있으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가족들의 재결합 문제까지 이야기된 바 있었다. 그리고 2001년 2월 6일 3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녘고향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2차 송환을 요구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부나 적십자사는 2차 송환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당국자들도 2차 송환의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북사이의 다른 인도주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이른바 '상호주의론'은 내세웠다. 바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었다. 당국의 표현대이라면 이른바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는 이미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는 남북이 다같이 안

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로서 남북이 새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상호관심사항이다. 합의사항은 합의한 대로 곧 바로 이행을 해야하고 상호관심사항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희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미제사항이다. 합의사항과 미제사항을 연계시켜 이미 합의한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여기에서 미해결의 인도주의사업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이끌어 내는데 ‘김영남씨 실종사건’ 사례는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해 6월 28~29일 금강산에서 있었던 ‘제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에서 1978년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실종되었던 김영남씨가 북쪽 가족으로서 남쪽의 어머니 최계월씨와 누나 김영자씨를 만나게 되었다.

김영남씨는 가족상봉을 하면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북에 살게 된 경위에 대해 ‘나의 입북은 납치도 자진입북도 아닌 대결시대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돌발적 입북이었다’며 구체적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어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씨를 포함한) 자녀를 두고 중요업무에 종사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쪽의 어머니와 누나도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며 만남만으로도 상당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남과 북으로 서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흠어진 가족들의 상봉이나 재결합문제 등 최선의 인도주의 방법이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머지않아 더 많은 상호 신뢰 속에 자유왕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주무당국인 통일부는 언제나 ‘상호주의론’ 등으로 딱 막힌 억지 주장만을 하지는 않았었다. 2005년 8.15 축전 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 송환추진위 대표의 송환촉구에 대해서 ‘당연히 보내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그해 9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전향장기수복송가능성을 묻는 여, 야 의원 질의에 대해 ‘인도주의적 ‘인권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 ‘을 굳이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 30일 2차 송환 희망자 정순택 비전향장기수가 세상을 떠나자 유해송환이란 이름으로 북측가족과 관계자에 유해를 인도한 바 있었다. 이때 정부 당국이 표현한 유해송환은 2차송환 대상자의 ‘송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2005년 안으로 2차 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언론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그런데 해를 넘기기도 전에 유감스럽게도 통일부는 ‘조건없는 송환방침’을 뒤엎고 있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른바 뉴라이트 등 수구냉전집단의 색깔공세를 빌미로 슬그머니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 대표에게 2차송환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인도주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상 ‘상호주의론’을 또 다시 내세우고 있었다.

정부당국의 이같은 비전향장기수송환을 비롯한 남북 관계에서의 일관성없는 태도변화는 아직도 대결과 불신이라는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공조 대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면한 한.미.일공조체제에 묶여 주권국가로서의 올바른 자주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서 연유되고 있다. 지난 해 7월 제19차 장관급회담에서 한결 같이 이어오던 인도주의 문제까지 외면하여 끝내 당국자대화를 막히게 한 것은 민족의 진로를 옳게 보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당시 우리의 주장은 분명했었다. 어떠한 정세변화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흔들림없어야 하고 이미 합의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지체없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실제로 이른바 북핵문제로 180도 전변되고 있었다. 북미관계 변화와 2.13합의가 그것이다. 박제된 고정관념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세변화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6.15공동선언 합의 사항인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은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평소 비전향장기수송환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으며 한원상 적십자총재 또한 최초로 인민군중군기자 이인모선생을 복송케했었다. 이제 4월 10~12일에는 금강산에서 제 18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미 합의된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의 신속한 이행문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차송환희망자들은 이미 일곱 분이 세상을 떠났다.

정순택선생의 유해 송환이후에도 지난 해 11월 27일 김원철선생이 28년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올해 2월18일 맹기남선생이 31년 옥고의 후유증을 앓다 끝내 신념의 고향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2차 송환희망자들은 대부분 85세에서 90세를 넘는다. 지금 이 시간 고성화 천광섭 문상봉 이학천 김중하 이찬근 강담선생 등이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어 언제 또 다시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운명할 지 모른다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은 또한 편안히 묻힐 자리도 없다.

망자에 대한 인륜적도리로서 묘역조성한 일조차 국가보안법을 걸어 범정에 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다. 출소한지 20년이 지나고 80이 넘는 노인들이 보안관찰법으로 감시 통제당하고 있으며 숨을 거두어도 묻힐 곳조차 없다. 이제 비전향장기수들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정신으로 아무 조건없이 그들의 희망대로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해야 한다.☛

의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김동오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법질서 확립과 사법정의 구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글을 드리는 본인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결심공판에서 중형이 구형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재판을 대부분 지켜봤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공동의장이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오현이라고 합니다. 재판장님께서서는 이 사건의 심리와 정에서 한결같이 소송 양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침없이 공평하고 세심한 심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법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와 같은 의견을 드리게 된 것은 결심공판에서 보인 검찰의 의견이 시대역행적 냉전논리와 공안시각에 근거하고 유추와 추정 등 불명료한 자의적 판단으로 억지 간첩사건을 만들고 있으며 분단시대 자주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애국열정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매도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재판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든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시대정신과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의와 인권보장의 절대적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가보안법은 그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법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한계 때문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지배수단의 잔재이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대부분이 우익

인사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조차 사상탄압과 정치적 악용 집행자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법이 제정되고 한 해 동안 118,000여명이 사상범이란 이름으로 입건 구속되었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당하기도 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다해서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진보정당 대표가 사법살인당했고 뒤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분도 이 법을 적용받아 사형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등 고위급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 법으로 감옥살았고 수많은 간첩사건이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정권안보법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자주통일을 가로막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한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전반적인 애매모호성과 불명확성으로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고 가중처벌되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 근대형법원리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법의 개폐를 주장하고 현대통령까지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했던 말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으로 인간내면의 양심을 재단하거나 더욱이 분단조국을 자주통일하려는 민족적 양심마저 심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둘째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단체'이며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는 전제 속에 기소된 점입니다.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서도 공소장 머리에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구성된 반국가단체'라 했으며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에 따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전제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위한 '허구'라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써 남과 북은 국제연합(UN)에 회원국으로 함께 가입했고(1991.9.17) 이북은 140여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7.4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6.15남북공동선언(2000.2.15)', 등을 남북의 최정상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총리 등 최고위층이 서명하였습니다. 유엔회원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화애호국'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남북사이의 공동선언 등은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와는 결코 합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남북사이에는 장관급 회담에서부터 장성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 적십자회담 등 당국간 회담이 이어지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제협력과 인적물적교류가 확대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이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한다'는 검찰의 전제도 '허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더욱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건 심리 중에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이북의 '조국통일 3대헌장' 내용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1972.7.4)' '고려민주연방제 창립방안(1980.10.10)'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4.7)' 등 어느 곳에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내

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되고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이고 사상과 이념 제도 등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전형적인 예로 2005년 8.15일 민족대축전 때 이북의 김기남 북측당국대표단장과 안경호 6.15북측위 공동위원장 등 32명이 이봉조 통일부차관의 안내로 흑석동 현충원을 참배한 사실이겠습니까.

셋째 이른바 '일심회'라는 이적단체가 과연 존재했느냐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자 어느 누구도 '일심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안기관에 구속되어 수사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데 강령도 규약도 없었다는 데서 (관련자들의) 진술의 진정성을 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장민호씨만이 '편의상 자명하여 이름과 관념만으로 존재한 이 사건의 명칭'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장민호씨가 말하는 '일심'은 민족경전 천부경에서부터 고 문익환목사님의 민족통일사상에 이르는 한국고유사상의 핵심인 '한마음'의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넷째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관련자들이, 이른바 반국가단체인 이북에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에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하여 국가보안법 제 4조 목적소행죄에 해당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이른바 국가기밀이 하다못해 집권여당이나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등 대외비 문건이거나 그 밖의 군사시설 따위라면 몰라도 기껏 민주노동당 그것도 이미 게시판에 올려져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이 어떻게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금과옥조로 확대해석하여 관련자들의 혐의를 부풀리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도, 그 지령을 받은 일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문건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아끼고 발전을 위한 통일운동차원에서 토론자료로 공유하기 위해 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남북사이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청년학생단체, 여성단체, 언론단체, 학술단체들이 이북의 상대 정당 사회단체들과 남북으로 오가며 지도부들이 서로의 속내를 터놓고 말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공동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방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오직 이북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간시각이야말로 6.15공동선언정신에 정면배치된다고 하겠습니까.

재판장님!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본질은 6.15공동선언시대 자주통일운동과 대결과 불신이란 냉전 공간논리의 총돌이 빛은 의제된 간첩사건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체계에서는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와 국가기밀누설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남과 북은 대결과 반목 심지어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화해하고 단합하며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은 대결시대에서 화해단합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냉전공간논리로 이를 부정하려해도 그것은 그들의 관념세계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

는 북미관계와 2.13합의로 이제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가 사라질 날이 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설이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조차 대북정책 수정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10만 명이 넘게 남북으로 오가고 있으며 철도 도로가 이어지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되돌릴 수 없게 화해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바닥으로 해를 갈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제된 냉전 공간논리는 이제 사법체계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04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재독철학자 송두율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북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도 변해야 하고 비록 실정법으로 남아있다해도 그 적용에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법정의 구현에 좋은 사례를 남기시기를 빌겠습니다. ㄹ

2007년 4월 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 오 현 드림

“4월혁명은 자주통일로 완성해야”

- 4월혁명회 노중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안진걸 | 회원(희망제작소)

“4월 혁명 모독하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사죄하라. 최근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교과서 포럼이 마련한 역사교과서 시안을 보고 우리 4월 혁명 동지들은 기가 차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이처럼 조롱당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4.19 혁명을 학생운동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독재가 시민사회의 바탕을 만들고 민주사회 토대를 닦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5.18광주민주항쟁을 광주가 발전에서 소외돼 일어난 운동으로 폄하했다고 한다...”

4월 혁명회의 지난 해 말 4성명서의 한 구절이다. 4.19 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처럼 뉴라이트 진영이 ‘반역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친일·친미 독재찬양의 역사로 다시 쓰고자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애초부터 가치관이 엉망인 자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오죽하면 뉴라이트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있었을까.

이러한 뉴라이트의 작태에 가장 분노하고 있을 4월 혁명회 노중선 선생님을 4.1947돛을 목전에 둔 4월13일 인사동 탐골공원 쪽 입구 세븐일레븐 건물 3층에 자리잡은 4월 혁명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 선생님과 4.19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제가 1940년생이예요. 고향은 공주 농촌마을이었



고요. 그러니까 대학 3학년 때 4.19를 맞이했지요. 당연히 저도 4.19 혁명에 참여했지요. 근데, 저는 조용하게 참여했어요. 학생들이 다 데모하니깐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광화문으로 따라다닌 것이죠.(웃음)”

- 나중에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4.19후에 정상적으로 군대도 갔다 오고, 산골마을 중학교 선생 노릇도 2년여 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68년부터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에서 노동교육과정을 공부했어요. 이어서 작고하신 권두영 박사, 김낙중 선생님 등과 함께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맨 처음 연구조수 겸 간사로 취직을 한겁니다.”

- 당시에 노동문제연구소라면 굉장히 혁신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 그런 노동문제연

구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매우 컸었죠. 당시 김윤환 선생님(고대 경제학 교수)께서 1965년에 노동문제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밖에서 만들었다가 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노동문제연구소에는 노동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기업체의 노무관리 담당자, 노동조합 간부들, 대학원생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인사들이 공부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1%정도라고 하던데, 그때한국노총 조직률은 22,3% 정도였어요.

- 고대 '민우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죠?

“예 73년도예요. 민우(民友)지 사건인데요. 고대 '한백회' 회원학생들 중심의 최초의 유신반대운동이었죠. 저는 그냥 배후로 조직이 돼서 함께 구속된 사건이죠 (웃음). 박정희 독재가 71년 9월 위수령 발동하고, 학교를 폐쇄하던 때예요. 그러다 72년 7월 달에 7.4공동성명 발표하고, 10월 달에 이른바 '유신'을 선포했죠. 각 학교도 조기방학에 들어가야 했고, 그러다가 이듬해 1973년 개학이 되자마자 학생들이 '유신 선포'의 반민주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비리들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민우'를 제작하여 교내에 비밀리에 배포하는 등 유신반대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72년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연구소로 와서 노동체험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때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농활을 갔을 뿐 노동운동 현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강원도 광산으로 보냈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노연 노동교육 수료자 중에 광산노조 조합간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9월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과 자주 만나는 인연이 된 거예요.”

- 아 그러면,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네요?(웃음)

“그렇죠. 이 사건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유신반대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활동이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게 되는 과정에서 김낙중, 노중선 두 사람이야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까지 중앙정보부 잡혀갔고, 기본적으로 고문당하고...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음모 혐의로 구형 10년에 5년형을 확정 받았어요. 그렇게 5년을 대전 감옥에서 살았어요.”

- 78년도에 출감하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출감한 다음에는 출판사(일일서각)에서 편집 교정 일하면서 기본생계를 유지했지요. 그러면서 통일문제와 통일운동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물이 85년도에 나온 자료집 '민족과 통일'이지요. 그때까지는 통일관련 도서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연표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런대로 의미가 있었던 같아요. 80년대는 그렇게 지냈어요.”

- 아니 전두환 정권이 그 책을 가만히 두던가요?

“자료를 찾아 자료집을 엮어내는 일이니까 다른 일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자료작업을 해서 4.19시기의 통일논의와 자료들을 정리하여 89년에 다시 '4.19와 통일논의'를 냈어요. 그리고 96년에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을 냈고, 그동안에 조그만 출판사도 운영하기도 했는데 작고한 권두영 선생님 지원 하에 출판사 '한백사'를 내서 책을 한 10여권 냈죠. 그렇게 그렇게 생활하며 지냈어요.”

- 92년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 때는 어떻게 수감되신 건가요?

“89년 말에 '평화통일연구회'를 함께 만들었어요.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짜임새 있는 기구를 만들어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해보자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공평동에 있던 교대교우회관 6층에 사무실을 확보해서 연구회를 운영했어요. 노동문제연구소 은사김윤환 선생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권두영 박사, 김낙중 선생님과 함께 출발했지요. 중부지역당 사건은 기본적으로 조작인데, 저도 공범이 된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평화적 자주통일을 향한 좋은 연구소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했는데,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두고두고 아쉬운 일입니다.”

- 그 후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이미 해왔던 자료 찾는 집필 작업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96년에는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를 냈어요. 그리고 2000년에 ‘남북대화 백서’를 출간했구요. 생활은 아내가 맡았구요.”

- 4월 혁명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88년 6월 결성돼 지금까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말 그대로 4.19 세대들이 활동하고 있고, 회원은 80여명 쯤 되구요. 90년부터 ‘사월혁명상’을 시상하고 있어요. 해당 연도 1년 동안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4월혁명정신을 가장 잘 선양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선정 절차는 우선 관련 단체대표들의 추천과 자문을 얻거나 우리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정합니다. 올해 제18회째 사월혁명상은 문정현 신부님이 수상합니다. 한마디로 사월혁명회는 4월혁명의 완성을 위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 4.19 미완의 혁명의 완성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결국 4.19에 대한 관점들이 다른데, 어떤 이들은 부정선거에 맞선 민주항쟁으로 이야기하는 데 그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성역화하거나 기념하는 식으로 끝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떤 달, 어떤 일로 그렇게 고착화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4.19는 단순히 부정선거에 반대한 의거만은 아니었어요. 4.19가 일어난 것은 분단모순이 압축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하거

든요. 50년대에 이승만 정권이 냉전·분단체제를 유지해야하니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독재를 유지해야 하니까 부정선거를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분단모순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즉 4.19는 민주혁명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주민주통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민통련도, 민자통도 생긴 것이고 학생들이 남북학생회담 운동도 펼친 것이거든요. ‘4월에서 통일로’라는 말도 생긴 것이고요. 이렇게 통일운동이 고양되니 다시 냉전·분단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월 혁명의 완결은 분단극복, 통일완성에 있어요. 냉전·분단체제를 일소하고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4.19혁명은 계속해서 미완의 혁명이 될 수밖에 없습시다.”

- 최근 뉴라이트의 4.19 폄하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을 텐데요.

“뉴라이트는 ‘4.19가 혁명이 아니다’는 식으로 폄하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4.19가 혁명이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5.16을 혁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4.19를 폄하하는 것이거든요. 4월혁명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고양을 완전히 짓밟고 냉전분단독재를 재건한 5.16군사반란을 혁명이라니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 ‘과거를 전혀 반성 않는’ 박근혜씨에 대한 실망도 크실 텐데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죠. 7.4공성명 내용이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이었는데요, 박정희는 처음부터 이를 지킬 의사도 없고, 또 그러한 화해국면을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바로 유신을 선포한 거죠. 7.4공동성명을 지키면, 체제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주를 하려면 미국과 단절해야 하고, 평화를 하려면 독재를 할 수가 없고, 민족대단결하려면 이북과 교류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유신독재는 독재뿐만 아니라 반

통일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대원칙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최근에 와서야 자주·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적 염원이 반영돼 남북의 당국자가 만나 6.15남북공동선언도 했고, 그 이후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는데, 냉전·분단·대결 의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반통일적 유신잔당들이 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는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불감증은 정치현실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왜곡된 역사의 청산이 미진한 결과이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선생님의 평생 연구 주제가 ‘통일’인데, 남북관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넓게 보면 통일국면에 접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냉전시대와 비교한다면 정세나 환경이 크게 바뀌었지요.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공동행사를 2005년부터 민·관이 함께 하는 것도 큰 발전이지요. 교류협력도 아주 일상화 됐잖아요.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민족화해적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민이든, 관이든 서로 노력해야죠.”

-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는 통일에는 소극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반전 평화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화는 통일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결적 의미의 평화정착은 바로 통일의 성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선생님의 통일관을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통일은 단순히 영토와 정치체제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에는 반드시 ‘자주’라는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주적 통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4.19시기의 활기찬 통일논의, 8,90년대를 거쳐 6.15통일시대를 맞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통일운동의 내용은 일관되게 평화적 자주통일이었습니다. 남북 교류활동, 반전평화운동, 문화 학술활동들이 민족자주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 경제적 불균등 문제, 문화적 편향의 문제, 평화 정착 문제 등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모든 당면한 문제들의 완결적 해결은 ‘자주적 통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분단은 최악이고 불행입니다. 냉전과 분단으로 지금도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민족구성원 모두는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 양심적 지식인일수록 더욱 그러하지요. 그러므로 자기 생활의 위치가 어디이든,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 스스로의 현장에서 평화적 자주통일을 위한 관심과 실천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행 광고입니다.

- 일 정: 4박 5일
- 일 시: 5월 20일 ~ 26일 중 10인 이상성원이 되면 출발가능합니다
- 장 소: 중국 흑룡강성 경박호 및 백두산 해림, 연길, 등 동북방향입니다
- 요 금: 850,000원 (소폭의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포함-비자발행비
- 문 의: 산하여행사
C.P:010-6513-5800 / TEI 032-673-1527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죠!

- 유성기업 엄기준님 형 엄기현 -

임미영 | 사무국

아직 원만한 봄은 아니었지만 산천에는 희거나 붉은 꽃들이 피었고 논두렁에는 막 자라나온 키작은 풀들이 푸릇한 기운을 자욱이 피워올리고 있었다. 좀 한가한 날에 산천으로 갈래갈래 난 국도를 따라 천천히 차를 달린다면 봄의 기운들을 듬뿍 뺏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후의 나른한 햇살 속에 기껏 고속도로를 내달렸을 뿐이다. 그렇게 대전교도소에 당도하여 정문에서 신분증을 들이밀고는 앞마당에 이르자 길 왼쪽으로 마른역새가 뒤엉켜 있고 오른쪽으로는 비좁게 꾸민 연못에 네댓 마리의 오리와 사슴들이 오후 녘의 봄 햇살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정원을 지나 민원실에 들어가서 자동판매기의 커피를 빼들고는 대기실에 가득한 화장실 앞모니아냄새를 피해 슬쩍 마당으로 나왔다. 가지를 볼품없이 처낸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매달리고 그 아래 보랏빛 제비꽃도 띄엄띄엄 보였다.

우리는 실없이 마당에 매달린 그네에도 앉아보고 또 예수인지 부처인지 모를 동상을 살펴으며 면회시간을 기다렸다.

그리 자주 와보지는 않았지만 늘 면회시간이 가까워 오면 후다닥 만나고 나와야 한다는 것 때문인지 긴장이 되었다. 20여분을 넘게 기다린 후 약속시간이 되어 면회실로 들어서자 아주 젊고 소탈한 청년이 유리문 안에서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차단벽아래 설치된 마이크 장치에 입을 대고 인사를 하라 또 분으로 삼켜지는 시간 확인하라 마빠서 '서울에서 온 양심수 후원회원' 인 것을 밝히고는 대강의 인부를 물었다. 엄기준님은 우리의 어색함을 알아차리고 친절하게도 부드러운 사투리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었다. 지금은 일만수 3명과 같이 한 방을 쓰고 있는 것과 처음에 올 때는 주먹만 한 쥐가 나왔던 이야기이며 동반 단식할 때는 배가 고파죽는 줄 알았다는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우리는 출소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힘내시라고 손을 흔들며 보이는 것으로 짧은 대면을 마치고 밖으로 나

왔다. 면회실을 빠져나오자 짧은 시간 때문이였는지 아니면 한창 왕성한 나이에 수감생활을 하느라 얼굴 한 구석이 어두워보이는 엄기준님의 모습 때문이였는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착잡해졌다. 우리는 교도소 정문을 나와서는 4시가 넘도록 미룬 점심을 먹으러 바로 교도소 앞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었다. 열심히 수다를 떨면서 밥을 먹고 나오자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출소자인줄 알았는지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자 장사 까짓것 안 되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간혀 있는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낮고 그 악명(?) 높았던 대전 교도소를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차를 몰아서 엄기준님의 형을 만나러 천안으로 갔다.

아파트 앞에서 일이 술술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휴지를 사들고는 엄기현님을 기다렸다. 10여분 후 막 퇴근하여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대고 있는 엄기현님을 만났다 요즘 허리가 좋지 못해서 재활치료 받으러 다니는 중이라고, 그래서인지 다소 어색하게 허리를 뒤로 젖히고 걸어와 낮선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엄기현님이 이끄는 대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문경의, 강원도와 경북을 경계한 지역의 편안하고도 구수한 사투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을 좋아하고 또 누구하고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듯했다.

‘동생과 많이 닮았네요’ ‘그런가요?’

마흔이 넘은 나이인데도 동생의 얼굴에서 본 순진함이 닮아있었다.

- 그때 같이 구속된 사람들은 다 출소했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생은 다른 사건과 형이 합해져서 11 월에나 출소하

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죠. 여태도 잘 견뎠으니깐 잘 견딜 거예요.

엄기현님은 동생이 그렇게 잘 견뎌준 것이 못내 기특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가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투쟁해보기도 전에 갇히게 된 것을 안타까와 했다. 엄기현님은 구속양심수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노조활동의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아직 사회초년생일 수밖에 없는 동생보다는 형 엄기현님의 이야기에 더 귀가 솔깃해졌다.

- 언제 노조조합원이 되었나요?

우리는 유니온조합이었어요. 입사 후 3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었죠. 지금은 60일만 지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조합원이 되면서 노조활동이 시작된 건가요?

그런 셈이죠. 처음에는 저는 이런 노조활동하면 회사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5월에 입사했을 때 그때 임금상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들어오자마자 시골에서 올라와서 힘들게 회사 들어갔는데 파악하면 당연히 나는 물론 회사 다 망하는 줄 알고 있었죠(웃음) 회사 조희시간에 회사관리들이 그런다고 하니깐 나는 잔뜩 염려가 되어서 형들에게 회사 망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형들이 그랬어요야 십년 전에 우리도 파업이니 노조활동하면 망하는 줄 알고서 잔뜩 겁을 먹었다고! 그러더니 일년일년 지나다보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지금 후배들은 그 정도까지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도 회사 측과 교섭할 때 사측 사람들이 그 수법 써먹죠. 걸핏하면 회사 망한다고 그래서 말하죠. 아니 그때도 망한다 고했는데 가령 10년 전에 수익이 10억 원이었다면 현재는 그 열배의 수익이 생기지 않느냐고.....그런 주장에는 사측에서는 할 말이 없죠. 사실이 그러하니깐요. 결국 할 말도 없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탄로난 셈이죠

- 그런 걸아니깐 동생에게 또 그 길로 이끈 것인가요. 아니요 동생은 그때는 사회초보자로서 많은 걸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상태에서 동생이 구속되고 말았으니 많이 아쉬운 거죠!

그때는 나는 동생을 전면에 내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우연찮게 일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그날 노동자 대회 때에 저는 이웃 동료의 딸까지 데리고 가서 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기까지 했는걸요. 그런데 갑자기 사수대 나오라니까 동생이 젊은 혈기로 나가게 된 것이죠.

- 그랬군요. 엄기현님은 결혼은 일찍 하셨어요?

아뇨. 서른 살에 했어요. 아내는 같은 동료는 아니고 제 직장하고 멀지않은 신한일전기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선봉기로 유명한 곳이지요.

- 부인은 어떠신가요. 남편이 노조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조합원이었나요?

네 아내도 노조간부였으니깐 처음에도 대개 좋아라 했죠. 그런데 아내는 올바른 노조가 아닌 말하자면 어용노조였고 그러다보니 간부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올바른 노조활동은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간부니까 집회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랬어요. 한번은 그쪽과 함께 통합집회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걸 순 엉터리였죠.

- 서로 학습하고 많은 것을 주고받았겠군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내는 자기가 명색이 노조간부였는데 그래서 내가 똑바른 것을 이야기 하면 싫어하죠 아마도 자기가 아는 활동과는 너무나 다르고 낯설어서 심지어 내가 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 그렇기도 할테고 또 남편의 일이 현실적으로는 그 활동이나 투쟁방법에서 좀 불안하기도했을 테지요

지금 아내는 직장을 그만 두었어요 애들이 아직 어리고 해서요.

그리고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석연치가 않아요 쥐꼬리만한 임금에 애초에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갖은 일 다 시키니 나로서는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을 하려면 일의 규칙이 있는 공장에 들어가라고 하지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회사일(자동차부품)을 가지고 집에서 부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아이들 키우라 집안 일하랴

바쁘니까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게 되고 나는 또 나름대로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예 와서 나는 나대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내가 잔업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밤새해도 돈도 안 되고 그리고 허리만 잔뜩 아프고 말이죠 -그 대목에서 우리는 웃었다-그래서 안해요. 돈이 적더라고 공장근무가 낫나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아내는 집안일보다 바깥 활동이나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말이죠.

아내가 일을 할 때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밥먹이고 아내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남은 뒤치다꺼리하고 그러기를 한 달 반쯤 하다가 회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었죠. 아내는 다른 일을 알아보던 참이었는데 그 사이 내가 집안일을 안하게 되니까 게으른 마음도 생기고 해서 그 참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에요..... 가정주부가 바깥에서 벌어오는 돈이라는 게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회사생활이라는 것을 하니까 아무래도 집안일에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하고 돈도 일정하게는 벌고 싶어했지만 내가 일정하게 그런 노하루를 가르쳐주어도 맘이 약해서 못해요. 부천에 있는 회사에 다닐 때였어요. 결혼한 후였는데 회사에서 선풍기를 팔라고 강제로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나는 아내에게 그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싸우라고 했어요. 도와주겠다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아내는 상관없어 했어요. 그저 회사에서 맡겨지는 대로 묵묵하게 했으니까요.

- 으이구! 부인이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그때 내가 아는 걸로는 아내의 동료는 선풍기를 엄청 많이 팔았는데 겨우 십여 만 원 정도의 수당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파느라고 전화요금에 교통비에 ...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니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아내는 내 성화에 선풍기를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출퇴근할 때마다. 아내의 공장 앞에서 소리를 질렀죠. 왜 그런 것을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느냐고요. 영업은 영업담당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아내는 나를 말리죠. 안 팔면 눈치 보이고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나로서도 임신한 아내를 보고 해고 투쟁하라고 시킬 수도 없고.... 지금은 나조차도 한 풀 꺾었다고 봐야죠.

- 지금은 생활이 좀 여유가 생겼나요

우리는 아이들하고 네 식구인데 내가 총각 때에는 월급이 적든 많은 저금이라는 것을 했는데 생활을 담당하는 아내는 늘 부족하니까 저금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저금으로 돌렸죠.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내로서도 옆에 친구나 이웃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다 쏟아부어서 마치 아이가 미래를 보장이라도 해줄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아무리 같은 노력을 한 다해도 그것을 넘어서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로 살기가 힘이 들어요.

-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입사한 곳은 자동차부품회사 도금실이고 외장업장이예요. 우리 회사에서 그때 그곳이 유일하게 3교대 작업장이었어요. 주간작업조가 3명이었는데 삼교대 15명 기능장 1명해서 19명이었는데 16명은 외작업장 우리 3명은 일반작업장이었어요. 입사하자마자 일은 조금 차이가 난다해도 같은 냄새 맡고 같은 작업장인데 3교대작업장은 6시간 작업하고 잔업 2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30에 퇴근하는데 기본급만 받아가는 거예요. 연장장업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부천현장에서 6.7년 다니다가 회사가 지금 있는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결의했죠. 싸우자! 라고. 회사가 이전하면 일도 더 힘들어지고 잔업도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전 후에는 같은 조건으로 일하기로 하고 먼저 한 사람이 그곳으로 파견되었었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도 변한 게 없었죠. 그래서 3명이 정말 싸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노조간부와 두서너 차례 회의를 하고 투쟁방법을 익히고 난 후 우선 이전하자마자 작업장을 분리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전술이었지 작업장을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일련의 라인으로 일하게 되게 되어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조건을 들어줄 생각도 없이 '일하지 말라'고 나왔죠. 3명이 없어도 결국 일은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는 조합간부 4명과 힘을 합쳐 작업시간 10분전에 선전전과 함께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는 열 명으로 또 다음에는 100명 200명으로 으로 늘 어났죠 그러다보니 처음에 집회에 걸리는 시간이 오 분이면 되었는데 나중에는 행진도 하게 되고 똑 복귀 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그 와중에 다른 부서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전술이 되었 죠. 그래서 50여일 만에 우리조건이 관철되었어요. 그 후부터 사는 것이 좀 나아졌어요. 물론 그 뒤에는 들 어오게 되는 신입사원들이 우리가 쟁취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쟁취하는게 있었어요

- 노동자의 힘을 한껏 드높였군요

그것은 이런 불모지에서 나를 키워준 뛰어난 노동 자간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초기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나 집회에 몇 번 참석해보고는 야 이런 세 상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들의 선전을 들으면 ‘우리도 힘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막 와 닿았어요 나는 그렇게 조퇴를 해가면서 까지 집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했죠. 노계투때에는 일 년 혹은 몇 개월 전부터 아파트선전전을 담당해서 열심히 팸플릿을 돌렸죠. 나는 간부도 아니었는데 괜히 신이 났어요. 일이 끝나면 서로 인사하고 격려해주었 는데 그때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는데 무얼 수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간부들이 가능성을 타진하고 키워볼 만 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늘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하는 교육을 내가 다 참석하게 되었어요. 자진해서 갔 어요. 그 후 몇 년을 고된 교육을 받았는데 나에게 나 름의 한계가 있었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네요

엄기현님은 상근자로서 교섭임원이 되어 교섭에 두 번 나가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보았다고 하였다.

재미있었어요. 나는 대의원의장이지만 협상장에서 경험이 부족하니까 관찰시키고자 하는 한 가지 요건 만 가지고 열심히 붙들고 늘어지고 그것이 통하지 않 으면 노련한 조합원에게 가서 적재적소에 맞는 교육 을 받고 와서 다시 협상에 들어가곤 했어요. 무엇이 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우는 게 힘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나요? 사실

인척이 그 회사에 관리자로 있었어요.

엄기현님은 그 이후 노조활동을 하면서 인척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불거졌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 과 온 가족들에게 마음고생을 단단히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엄기현님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활동이 부도 덕하지도 불의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정당한 노동자 의 권리임을 설득시켰다. 다행히 부모님은 아들의 활 동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응원해주었으며 그 과정에 서 있었던 상처도 잘 보듬어 주셨다.

그리고 동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일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염려 없습니다. 나는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왔 으니까 제 의지 꺾이지 않고 잘 해 낼 수 있었고 또 나 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은 또 많 은 조건이 바뀌어서 우리 때와는 또 다른 걸요

- 동생이 출소 후를 좀 담당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출소하면 복직이 이루어지니까 크게 염려할 것이 없 고 그리고 또 동지들도 견제하고 하니까 염려하지 않 아도 될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은 조합에서 신경을 많이 써준다. 회사에서 같은 동료들이나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면회 도 가고 형인 자신도 대전교도소가 멀지 않아 면회를 자주 가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엄기준님이 형에게 무 일 가져다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마이크가 꺼지는 바 람에 잘 알아듣지 못해서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엄 기현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드럼스 탁이라고 했다. 동생이 교도소 내에서 자동차정비 자 격증도 따고 드럼도 배웠다면 형 엄기현님은 아주 대 견해했다. 우리가 잠깐 본 엄기준님은 틀림없이 그런 재주에 능해보였으므로 동시에 아하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본가의 노예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가장 창조적이 고 핵심적인 주체로서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성실을 다하고 있는 엄기준 엄기현님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거듭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또 눈물 을 글썽이게 만든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신 엄기현님 께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⁹

정창윤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2007년이 엇그제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해에는 이곳에도 좀 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설레임과 기대를 가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당소(안동교도소는 타교정 시설보다 규모도 작고 수용인원도 적어서 교정행정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소자의 각자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범의 범 죄를 줄일 수 있는 방향과는 반대로 출역이 최선의 교정 교화인 것처럼 선전을 하며 강제출역을 강요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6개월 동안 경험한 것은 ·비위생적인 거실 · 비인격적인 처우 · 권위주의적으로 가득 차있는 교도관을 보았습니다. 명령과복종 감시와 처벌 규율과 감금이 모든 것이 국가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이곳 재소자들 중에서 이곳만의 특별한 제도 때문에 자청하여 징벌반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동교도소 교도관님?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고 당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인권위, ombudsman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소자 몸은 던져 부당함을 말해야 귀 기울이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30일 강제출역에 대한 강박관념에 못이겨 자살을 하려고 자신의 배를 긁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교도소의 교정행정에 깊은 관심과 제도 개선에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에 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 2007년 2월 1일 안동교도소에서 정창윤 드림 -

김성환 님의 편지

권오현선생님께

꽃샘추위가 지나갔습니다. 마치 한 겨울이 다시 온 것처럼 유세를 떨치며 추웠지만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제는 대구교도소에서 건설노동자인 조기현, 김봉태동지의 서신을 받았습니. 3.13일 대구교도소에 구속된 노동자들이 단식을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포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획적인 탄압과 편파적인 사법부의 재판을 규탄 항의하기 위한 단식 투쟁이라고 합니다. 조기현동지는 시를 쓰는 노동자입니다. 이번에는 구속노동자 가족들의 아픔을 글에 담아 시를 보내왔습니다. 동시에 어르신들께서 FTA 협상중단 단식소식을 접하면서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양 마음이 무겁고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구속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단식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언제까지 구속노동자들이 어르신들의 단식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등포구치소 강성철 변의성동지 등은 복식 중이며 몸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모레(3/16)면 전해투동지들의 2심 선고인데 동지들의 심정이야 말할것도 없겠지만 나 역시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회원들과 선생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저에게 단식 후 몸 관리 잘하시라고 하시지만 어른들께서 단식을 하시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정권을 일국의 대통령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어제(3/13)에는 한미FTA 체결 안할수도

있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되어먹지 않은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지만 이런 말장난도 수많은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자위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 6일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재벌규탄기자회견 소식을 들으니 마치 지난 징역살이가 총정리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감옥살이가 시작되는 생각에서인지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기도 한 것이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긴 왔는지 조금 마음마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양심수선정이 되었다하여 새삼 달라질 것도 없지만 자본이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의 앞잡이인 현정권의 노동자 탄압의 실체가 세계 노동자들과 공유되고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유지를 위한 노동자 인권유린의 실상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가다운 삶을 위한 생존권투쟁이며 노동인권을 위한 투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엠네스티 양심수 선정이 개인의 명예가 아닌 시대의 명예가 되어 친민자본에 맞서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포근하다고 하지만 아침저녁 밤으로 찬기운은 여전합니다. 단식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탈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권선쌤님 항상 건강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무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거침이 없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양심수후원회 일꾼들에게 환절기에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립니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인질로 남아 걱정만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선생님의 건투를 빕니다.

- 2007년 3월 14일 물날 영등포교도소에서 김성환드림 -

강우성 님의 편지

양심수후원회동지들에게

2007년 정해년에 붉은 해는 어김없이 솟아 올랐습니다. 창살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온통 뿌연 황사로 뒤덮혀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에 눈물을 닦아주마던 노정권 탄압이 노동자들에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대구경북 건설노조 조합원 강우성입니다. 양심수후원회 동지들과 회원 그리고 권오현 회장님에게 처음 인사올립니다. 소식지와 책 그리고 영치금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우리건설노동자들이 가난까지도 상속받고 물려받아야 하는 세상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죽어나간 자리에 내가 들어가 일해야 하는 세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없는 세상을 바꾸고자 대구경북건설노동자들이 노예의 시슬을 끊고 노동자에 세상으로 새로이 태어난 날이 200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팔뚝질과 집회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길거리로 나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는지 현장에 계신 동지들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이지 못하고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행진과 구호도 이미 노동자로 태어난 동지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32일간의 파업투쟁을 접고 비대위 동지들에 뒷수습까지도 대구경북건설노동자 동지들은 훌륭히 해냈습니다.

올해 새로운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동지들에 연대와 엄호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를 조금만 소개하면 2003년 충남 세원테크 지회 이현중열사에 매형으로서 그때 처음 노동조합을 알았고 많은 동지들의 연대투쟁에 감격받고 일명 시다오깨(일을 도급받아 하는 사람 소사장)을 때려 치우고 대구경북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자에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해남열사의 희생 세원테크 동지들의 투쟁 내가 있을 수 없는 평생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과 민노당 및 많은 동지들에 도움으로 투쟁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열사가 계시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이현중 이해남 열사가 양어께에 계십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동지들과 회원분들에게 구치소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

게 보내준 소식지와 책 영치금 감사또 감사하고 이후 출소하면 동지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이제 추위가 끝자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동지들의 건강과 정혜년 돼지들의 복이 전체 노동자와 동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강우성을림

김창근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동지들께!

권오헌회장님과 실무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저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006년 하반기 총파업 투쟁 본부장 김창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민주노총과 통일운동 단체의 각종집회에서 회장님을 주로 서울에서 자주 보였는데 한미FTA반대투쟁으로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았군요.그간 대전지역 양심수후원회 동지들이 면회도 오시고 해서 무심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치금과 민족21책자를 서울동지들이 보내주시고 계신 것을 알고 이제야 펜을 들게 되었으니 죄송합니다. 많지 않은 재정과 인원으로 전국에 있는 양심수들을 보살피고 있는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이곳에서의 저의 생활은 초기에는 체포될 당시 경찰의 폭력으로 허리를 다쳐 생활이 어려웠으나 그동안 섭생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여 이제는 지낼 만합니다. 다만 이곳도 20여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비좁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재소자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특히 과일수용문제로 2평짜리 방에 6명이, 한 평짜리 독거방에 2명이 수용되어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 문제로 교도소 지휘계통을 통해 면담까지 하였으나 법무부와 정부차원의 사업방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모든 인권단체에서는 교도소 재소자들의 수용인원 문제 운동면회 서신 등 전체 생활제반문제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22일은 대전과 충남지역의 노동자 농민 2만여명이 대미굴중외교의 표본인 한미FTA협정체결에 반대하여 분연히 일어난 날입니다.그러자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는 경찰의 예고없는 물대포공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충남도청의 울타리가 불타고 담이 무너지는 피해가났 습니다.위 사건이 당일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찰도 알고 있었기에 사법처리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마치 충남도청이 불타버린 양 방송 3사와 조중동의 보도행태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때 다하며 검찰과 청와대가 저희들을 폭력조직으로 매도하여 대전 충남지역 노동자 농민 39명이 사법처리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저희 한미FTA관련 구속자들에게 포괄적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신중 축소위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집회에 참여하여 사건이 터지면 집회 참가자 모두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작년 포항건설노조 동지들이 70명 구속되었을 때 위 논리로 구속처벌되었고 이와 같은 포괄적 ‘공모공동정범’ 적용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이와 같은 행태를 고쳐내지 못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대단히 위축될 것입니다.

양심수후원회동지들!이제 곧 사월이 됩니다. 제가 머무르고 있는 2층 창살너머 동산에 벌써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서울에도 곧 소식이 전해지겠지요. 그리고 한미FTA협정교섭이 막판을 치닫고 있는데 밖에 있는 동지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대전지역의 동지들의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나 후원회 재정을 생각하시어 다음부터는 영치금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힘차게 활동하고 계시는 양심수후원회 동지들의 앞길에 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 2007년 3월 30일 대전교도소에서 김창근 올림 -

화약 냄새와 군화발로 더럽혀진 만리포 청정해안

- 한미연합상륙훈련 반대집회에 다녀와서 -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3월29일 새벽 5시 한 무더기의 차량들이 아직도 어둠이 깔려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날 8시30분쯤으로 예상된 북침전쟁상륙연습을 저지시키려 만리포해수욕장으로 가는 차량들이다.”

어젯밤 늦게까지 한미FTA 저지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자정 무렵에야 잠들었기에 새벽 3시 어르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실 때는 선잠을 깨운 몸이 무겁기만 했다. 그러나 4시에 예정된 차가 오기로 되어 있어 서둘러 모두는 세면을 하고 옷을 고쳐입었다. 일부는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먼저 떠났고 필자는 평통사로 옮겨 변연식 공동대표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떠났다. 어젯밤 늦게 인터넷 검색기사가 생각났다.



적인 훈련이다. 작전계획 5027-04는 2002년 전략기획 지침서에서 드러났듯이 한미연합사(CFC)와 유엔사령부가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을 수정한 것이다. 단계별 조치를 보면 1단계- 미국의 신속억지력배치, 2단계-북의 전략목표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점령지군사통제확립, 5단계- 한국정부주도하에 한반도 통일이란 바로 이북정권제거작전인 것이다.

이른바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RSOI-FE)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왜관의 캠프캐롤에 미리 갖다놓은 살인무기들을 이북을 겨냥한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기사였다. 이른바 미육군사전배치재고(Army Preposition Stock-APS_4) 훈련이었다. 미국은 언제든지 이 땅에서 침략전쟁을 벌일 계획으로 세계에서 5곳 밖에 없는 사전배치 전쟁 물자를 배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지난 24일~25일 사이에 RSOI-FE 연습에 투입될 미증원군이 장비와 함께 도착되었고 29일~30일 동안 전방 로드리게스로 이동해 실사사격훈련을 할 것이라 했다. 다 알려졌듯이 RSOI-FE연습은 대북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5027과 5026을 숙지하기 위한 미국의 제국주의화 군사패권주의의 다른 모습이기도 했다. 올해 이 연습에는 F-117스텔스전폭기 1개 대대와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등 미국의 최첨단 전력과 신속정밀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 등 미증원 병력 6,000여 명을 포함 29,000명이 참가하고 한국군 수만 명 함께하는 대규모 한미연합 연습이다. 오늘 만리포에서 열릴 한미연합상륙훈련은 작전계획 5027-04의 3단계 2부에 따라 이북의 서해안 침투 및 평양점령을 위한 RSOI-FE 연습 중 가장 공격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른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 가겠다는 말에 눈을 떠보니 이미 먼동이 트이고 어둠은 완전히 가신 때였다. 서해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행담휴게소에서 잠시 쉰다. 다른 차량에 아는 얼굴들이 보인다. 혹은 원천 봉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이번 반대 집회는 정식으로 집회허가를 낸 것이었다. 다시 차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리고 서산 입체교차로를 빠져나가 서산 시내를 거쳐 32번 국도로 달렸다. 태안읍을 지나고 소원면 묘향리 만리포해수욕장에 이른다. 해수욕장 가기 전 500미터 전방에서 경찰의 검문이 있었지만 별일 없이 통과했다 길 양편으로는 전경들 1000여명이 긴 닭장차와 함께 진을 치고 있다. 남녘대륙으로서는 가장 서쪽에 위치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 50분이었다. 생각만큼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 작은 파도가 일렁인다. 밤이슬에 젖었지만 넓고 긴 아름다운 백사장이 말 그대로 만리에 이르는 것 같다. 그런 해안가로 괴물체가 눈에 들어온다. 오늘 상륙작전반대를 막기 위한 원형철조망이 온 해안에 설치되고 있었다. 그리고 30여 미터 거리를 두고 국군들이 개인참호를 파고 들어앉아 시위대의 접근을 막으려한

것 같다. 과연 이 군인들은 누구를 엄호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말인가! 동쪽을 죽이는 북침전쟁연습을 엄호하는 이들의 국적은 어딘가 말인가! 경찰은 이른바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었다. 상륙예정지점에서 150미터 쯤 떨어진 곳의 제한된 장소였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서산 태안에서 아니 멀리 전주에서 반전평화단체성원들이 달려왔다. 모두들 밤잠을 설치고 반드시 이 북침상륙작전훈련을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모인 것이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공동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국교회인권센터목사님들이 상륙훈련반대기도회를 하려고 달려왔다. 평통사 범민련일꾼들 통일광장선생님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농민회성원들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 그리고 청년학생들이었다.

8시30분쯤 서쪽 수평선 위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시간 상륙작전 훈련이 해안에서 벌어질 시간이었다. 검은 물체는 늘어나고 있었다. 북쪽을 향해 움직인다. 사진기자들이 카메라에 담기에 바쁘다. 그리고 점점 다가와 다시 남쪽으로 뺏머리를 돌린다. 그렇게 여섯 척의 구축함인지 하는 전함이 만리포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늘어섰다. 하늘에는 군용헬기가 바쁘게 날고 있다. 경찰들도 폴리스라인 뿐 아니라 담장차로 차벽을 만들고 있다. 무전기를 든 많은 사복들이 우릴 지켜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전쟁연습 중단하라!'고 쓴 펼침막 뒤로 120여명이 집회대열로 서있다. 펼침막 말고도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각종 피켓들을 들고 있고 해안 쪽을 향해서는 영문자 큰 글씨로 'S.T.O.P-RSOI'를 한 글자마다 한사람이 들고 있어 저 함정들 망원렌즈에 들어 가게 했다. 집회가 시작되었다. 한상렬 대표의 여는 말에 이어 평통사 범민련과 충남 서산 태안지역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농민대표들이 잇달아 북침전쟁놀음 집어치우라! 고 외친다.

앗! 그런데 먼 바다에 늘어서 있던 상륙함정들에서 작은 검은 물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수?용장갑차 들이었다. 집회대열은 바다를 등지고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하여 쉴 새 없이 구호를 외쳤다. '북침전쟁연습중단하라! 'S.T.O.P-RSOI' 기자들이 바빠 움직였다. 장갑차들이 빠른 속도로 밀려온다. 하늘에는 전투기편

대가 하늘을 가르는 굉음을 내며 시위대 위를 나르고 있다. 해안에 다가온 장갑차에서 큰 폭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터져 나온다. 해수욕장의 온 해안이 화약 냄새와 검은 연기로 휩싸였다. 실전을 방불케 한다. 실전이었다면 이곳 상륙지점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을 터이었다.

일부대열이 알게 모르게 상륙지점으로 미리 가 있거나 옮겨갔다. 다시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2.13함의 깨뜨리는 RSOI-FE 북한공격연습 중단하라!' 목청껏 외쳤다. '전쟁 반대' '상륙훈련 반대'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32번국도로 접어들고 있는 장갑차에 뛰어들었다. 경찰과 부딪히고 있다. 3명은 강제 연행되었다. 다시 펼침 막을 들고 긴급기자 회견을 했다. 필자는 여는 말에서 '만리포 주민여러분 경찰과 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도 이 나라 국민이고 한겨레입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상륙훈련은 평양인근해안의 상륙을 위한 북침연습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남북은 전쟁 없는, 외세간섭없는 통일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청정해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20여 대의 장갑차가 상륙하고 있다. 먼저 한국해병대에 뒤이어 미 해병대가 상륙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당당하지 못했다. 시위대를 의식한 듯 힘이 빠져 있었다. 지난해 바로 상륙해안에서 반대기자회견을 하던 이들이 역세게 저항했던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반대하는 대열은 당당했고 여유가 있었다. 할 말 다하고 행동했다. 이날 상륙훈련에서 웃기는 일이 있다면 미 해병대 장갑차 2대가 고장을 일으켜 바닷가에서 움직이지 못해 다른 장갑차가 끌어가는 모습이었다.

대열은 다시 폴리스라인 안에서 정리 집회를 했다. 오늘 반대시위는 매우 만족할만했다. 지난해 20여명에서 오늘은 120여명 내년에는 500여명 아니 그 이상이 함께 하여 끝내 전쟁연습을 끝장내게 해야 했다. 연행되었던 청년들이 주최 측의 완강한 요구로 풀려남으로써 정리 집회는 한국 진보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 평통사 참가자 일동의 결의문을 필자가 읽는 것으로 마쳤다. 

광화문 거리

- 김창희 회원을 만나다 -

이득형 | 회원

광화문은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 있어 서울 어디에서건 지리적 거리가 그리 멀지 않지만 언제부터인가 민주화와 통일과 인권을 요구하는 주장과 반민주와 반통일과 반인권을 요구하는 주장이 가장 많이 분출하는 곳이 되었다. 광화문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주 상반된 주장과 구호가 동시에 뒤섞이는 풍경은 이제 세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김창희 회원의 일터는 그 광화문 거리에서 조금 비껴난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다. 약속 시간이 늦은 8시 여서 참으로 미안했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내가 그를 붙잡은 꼴이 되었다. 그런데도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아 저녁을 먹자며 나를 이끌더니 아주 맛난 밥집으로 갔다. 나는 더욱 미안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저녁을 먹고 근처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다. 늦게 만나 시간이 모자란 탓에 나는 허둥대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하는 여행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새로운 풍광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여행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등산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자라면서도 그 꿈을 잊지 않고 더욱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가든, 등산가든, 하다못해 다른 이들을 여행하게 하는 사람이든……. 반드시 여행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그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3년 반 동안 일본어와 관광학을 공부하고 1994년 3월 귀국했어요. 귀국하자마자 여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을 맘껏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가슴이 벅찼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2004년까지 10여년 동안 여기저기 여

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일본여행 전문가가 되었고요. 한 10여년 하니 나름대로 노하우나 배짱(자신감) 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04년 독립 여행을 꾸렸습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인맥 등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쌓은 실력과 전문성을 살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여행을 만들어내고 싶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여행을 꾸린 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힘든 점도 있지만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과 경제적인 보상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일본에 갑니다. 여행객이 아닌 가이드로서의 출장이지만 항상 새로운 고객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익숙한 지역도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여행이 무어라고 생각하는지요?”

“글쎄요. 개인에 따라 조금씩 대답이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나는 여행이 평화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북녘의 핵실험 발표는 한국인의 일본여행과 일본인의 한국여행에 다소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되었지만 당시에는 약간 여행객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북일 간이나 북미 간의 문제는 참으로 예민한 듯해요.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양국 간의 민간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학교 간 교류에서 한일 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예정되어있던 상호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남북이 금강산 산업만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일이나 북미 간에도 관계가 좋아져서 여행객이 더욱 많이 오간다면 보다 빨리 평화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심수후원회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아마 1996년이었을 겁니다. 정신없이 보낸 직장생활 3년차가 되면서부터 세상에 무언가 자꾸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을 하던 차에 민가협을 알았고 그곳에서 회원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열정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활동하지는 못했죠. 실은 직장생활, 결혼 준비, 결혼 후에 출산과 양육, 가족의 미래 설계 등에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후원회 정기산행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내가 산행을 워낙 좋아했고 당시 서너 살 된 큰애에게 산행의 즐거움을 맛보이고 훌륭한 선생님들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싶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애가 서너 살이 되었을 때는 둘째만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둘 다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들에게도 여러 가지 자양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예, 사실입니다. 평계거리밖에는 안 되겠지만 벌인 사업이나 가족의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이 좀처럼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다른 사회활동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두드러지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다는 것이 가장 큰 평계거리가 될 듯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많이 자랐겠네요?”

“예,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몸피도 부쩍 커졌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잘 키워준 아내에게 고맙고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예전에 회원들이 가끔 양심수후원회 같은 단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말을 장난삼아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통일, 반인권, 반민주 등을 감시하는 단체가 없는 사회가 더 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후원회가 잘 되길 바라다면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겠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후원회에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총회나 송년모임 정도나 참석했을까. 회원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관심의 끈을 놓은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소식지나 가끔씩 들리는 소식 등으로 후원회에 대해 조금은 알고 지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더군요. 회비나 회원들의 활동 등이 모임의 동력인데 그 동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율배반적이지만 양심수후원회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게 시간 내주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글로 만나지만 여러 회원들께 인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알립니다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중인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 후원계좌: 제일은행 159-10-001411

■ 예금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에

- 3월 산행기 -

이병건 | 회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에 불암산에서 3월의 후원회 산행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우리 다섯 식구 모두 산행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전체 참가 인원(14명)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소시민으로 살아가며 후원회 활동도 제대로 못해 산행에 올 때마다 늘 면목이 없어 미안한 마음이 앞섰는데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선생님들과 후원회원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봄눈 녹듯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참 좋았지만 산에 올라오자 수줍게 피어 오른 진달래 꽃망울에서, 그리고 만개한 진노랑의 생강나무 꽃에서 정말로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현익이형은 생강나무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느다란 가지를 꺾어 사람들에게 알싸한 생강맛을 보게 하곤 합니다. 그 맛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생강맛과 흡사해서 왜 생강나무라고 부르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약수터에 이르러서는 기혼자들을 주눅들게 하는 총각들(권회장님과 현익이형)의 역기와 평행봉하는 모습이 회원들과 산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한발 한발 산에 오르다보니 어느덧 산행에서 가장 즐거운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순석회원의 둘째 딸인 후원회 전문산악인 민지는 벌써부터 '배고파'를 연신 외치고 있다가 제일 좋아라 합니다. 정상을 목전에 두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넓은 자리가 없어 위아래 두 군데로 나뉘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몇 가지 안되고 그리 맛있는 것이 아니어도 산에서 먹는 밥맛은 정말 꿀맛입니다. 게다가 호현이형이 가져온 고창 복분자주로 목을 축이니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밥과 술을 먹고나서 모두들 정상을 향했습니다. 이번 산행 최연소자인 여섯 살박이 우리 막내딸 은재도 거침없이 밧줄도 잡고 바위도 타며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늘 산행에 막내를 데리고 오면서 산에 잘 오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3년 전 도봉산 후원회 산행에 데리고 왔을 때 몇 걸음도 안 가서 안아달라 해서 결국 한 손에 막내를 안고 한 손으로 바위를 타며 고생고생 했는데 그런 아빠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잠까지 잤던 녀석입니다. 그랬던 녀석이 오히려 편한 길로 가기보다 일부러 바위를 타겠다고 씩씩하게 산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견했고 권회장님과 회원님들도 그런 은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행에서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아쉬움은 있지

만 참석인원 전원이 정상을 밟았다는 기록을 세운 의미있는 산행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전에 후원회 산행에서 점심을 먹었던 널찍한 자리에 모여앉아 조미간의 협상, 한미 FTA 등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권회장님의 간략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 중에 동아일보 조차도 북조선의 외교능력을 극찬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말씀을 들으니 광개토대왕 이래 우리 민족적 자긍심을 가장 드높인 곳이 바로 북조선이라고 한 송경용신부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 미국에 대해 중속적인 틀을 깨지 못하는 우리 남측의 외교능력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아구찜에 막걸리를 마시며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하루 전날인 윤종이의 생일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뒷풀이를 마치고 한잔 더하자는 형님들의 제의가 있었지만 산행에 지친 아내와 세 아이들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번 산행에 꼭 참석할 것을 기약하며 파주로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후원회 산행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참석하지만 꼭 가고싶다는 원지모를 이끌림이 있고 산행을 마치고 나면 가슴 뿌듯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언뜻도 녹이고 꽃도 피우듯이 우리 민족의 앞날에도 훈풍이 불어 남북 함께 손잡고 웃음꽃 피울 그런 날을 꿈꾸어 봅니다. ☺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 E-mail : yangsimso@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기타()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알립니다

5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 일 시 : 5월 8일 (화) 오후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작 품 명 : 민족과 운명 제43부 (노동계급편 제10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8년제작, 78분 상영)
- 줄 거리 : - 천리마강 시험생선은 지배인의 주관과 독단에 부닥치고 반대세력들은 진응산 작업반이 첫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분이 복잡한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서 떼어내려고 책동한다. 그러나 강철로 김일성주석의 지침을 관철하려는 강선의 노동계급은 마침내 천리마강을 뚫아내는데 성공한다.
- 김일성주석은 진응산 작업반의 사업과 생활을 보고, 공산주의적 집단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작업반을 첫 천리마작업반으로 임명하고 강선을 천리마의 고향으로 선포한다.



모시 는 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9차 정기총회

남에서 또 북에서 봄의 꽃들이 긴 겨울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심수석방과 후원을 목적으로 뜻을 모았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이제 창립 18돌과 19차 정기총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후원회가 해를 거듭하는 동안 회원여러분은 양심수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4월을 맞이하여 총회를 열어 회원들을 위한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이뤄내지 못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 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그리고 6.15공동선언 실현과 자주통일로 가는 반전평화운동을 결의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원과 격려를 더해주시고,
부디 오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9차 총회준비위원장 김 규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 오현

- 일 시 : 2007년 4월 28일 (토) 오후 3시 ■장 소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진 행 : ●●1부 정기총회 ●●2부 식사 및 뒷풀이
- 문 의 : 사무실 02-874-4063 (회장 : 017-260-3333 사무차장 : 010-4563-0559)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007년 3월 26일 현재 총 95명 | 민기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송정현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7-01-29	공갈			수원구 318	미결
장석철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6-12-12	공갈			수원구 312	미결
정부중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7-01-29	공갈			수원구 329	미결
조기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공갈, 갈취	3년	항소중	대구교 49	미결
강우성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12-19	집시공갈, 갈취			대구교 60	미결
손영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	06-12-20	업방폭력			포항교 3078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상고중	대구교27	미결
최규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	06-10-02	집시	2년6월	상고중	포항교 3075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5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3	미결
진남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하중근 사망규탄집회	06-08-17	집시	2년	상고중	포항교 3071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3년6월	상고중	대구교 29	미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4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2	미결
정승중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1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0	미결
지갑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8-23	업방폭력, 집시	2년6월	상고중	포항교 3072	미결
유기수	노동자	건설연맹	89 노동자대회(포항)	06-08-14	집시	2년	상고중	대구교 21	미결
박해옥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7/10	대구교 86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12-29	업방폭력	10월+8월	2007/06	부산교 874	기결
차현호	노동자	금강화섬노조	노조활동	06-09-29	업방특공	1년	항소중	대구교	미결
송태환	노동자	금속노조경기	파업(이전택 연대파업)	07-03-08	집시업방			평택구 207	미
유영창	노동자	금속노조광주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관련	07-03-06	집시업방			순천교 277	미결
김문선	노동자	기아차노조(광주)	한미FTA반대집회(1122)	06-11-26	집시폭력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18	미결
김기영	노동자	기아차노조(광주)	한미FTA반대집회(1122)	06-11-26	집시폭력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09	미결
박상모	노동자	기아차노조(광주)	한미FTA반대집회(1122)	07-03-16	집시공방			광주 서부서	미결
김병일	노동자	민주노총(경북)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상고중	대구교 46	미결
유봉식	노동자	민주노총(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07-01-10	집시폭력	1년6월	항소중	순천교 147	미결
박종갑	노동자	민주노총(대전)	한미FTA반대집회(1122)	07-03-16	집시공방			대전 동부서	미결
황차경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비정규직법안 반대(06)	07-02-07	집시특공			울산교 49	미결
김창근	노동자	민주노총(충남)	한미FTA반대 집회	06-12-30	집시공방			대전교 2118	미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규탄집회	06-08-17	집시	2년	항소중	포항교 3070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번노조	노조활동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이원진	노동자	이전택 노조	파업	07-03-08	집시업방			평택구 208	미결
김맹규	노동자	전교조(서울)	이적표현물	07-01-18	국보			서울교 61	미결
최희섭	노동자	전교조(서울)	이적표현물	07-01-18	국보			서울교 71	미결
연재일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09-19	폭력	1년	상고중	영등포구 3405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09-19	폭력	1년	상고중	원주교222	미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09-19	폭력	1년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02	미결
박상일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09-19	폭력	1년+4월	상고포기	영등포구 3404	미결
김현호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12-18	폭력	8월	상고중	강릉교	미결
이기용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12-18	폭력	8월	상고중	원주교도소	미결
곽영수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12-18	폭력	8월	상고중	영등포구 3431	미결
김남영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12-18	폭력	8월	상고중	영등포구 3403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결
엄기준	노동자	(주)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폭력	1년6월+2년6월	2007/11	대전교 2999	기결
정성훈	노동자	총남건설노조	한미FTA반대 집회(11.22)	07-01-17	집시,공방			천안교 5557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대령해고반대 농성	05-11-05	특공치상	1년6월	2007/05	순천교 1300	기결
천춘배	노동자	화물연대	파업	07-02-05	교통방해,폭력			부산교 6019	미결
엄기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파업	06-12-27	교통방해,폭력			울신교 20	미결
김대운	노동자	화물연대(전남)	파업	06-12-02	교통방해,폭력			순천교 268	미결
성기석	노동자	화물연대(전남권태이너)	파업	06-12-02	교통방해,폭력			순천교 221	미결
이태진	노동자	화물연대(전북)	파업	06-01-22	교통방해,폭력			남원경철서	미결
홍중선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파업	06-09-28	업방집시	8월	2007/05	강릉교 579	기결
박경연	노동자	화물연대(충청강원)	파업	06-09-28	업방집시	8월	2007/05	안동교 1127	기결
김태상	노동자	화물연대(포항)	파업	06-12-04	교통방해,폭력			포항교 3076	미결
박재호	노동자	화물연대(포항)	파업	06-12-04	교통방해,폭력			포항교 3077	미결
위두환	농민	전농광주전남	한미FTA반대 집회(11.22)	06-11-26	집시,폭력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17	미결
기원주	농민	전농광주전남	한미FTA반대 집회(11.22)	06-11-26	집시,폭력	1년	항소중	광주교 3322	미결
황의경	농민	전농대전충남	한미FTA반대 집회(11.22)	07-01-03	집시,폭력			대전교 3172	미결
이상영	농민	전농(충북)	한미FTA반대 집회(11.22)	07-01-17	집시,폭력			청주교 244	미결
정학철	농민	화순군 농민회	한미FTA반대 집회(11.22)	07-03-16	집시,공방			광주서부서	미결
전우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04-11-18	국보	3년6월	2008/05	광주교 5009	기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3-06	병역법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07-02-01	국보			서울교 119	미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6	국보			영등포교 3476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4	국보			서울교 113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4	국보			성동교 33	미결
박철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11-07	병역법			영등포교 2426	미결
김훈대	재야	교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5-22	병역법	1년6월	2007/11	논신교 370	기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7	의정부교 1723	기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방문	06-10-23	국보	3년	항소중	안양교 5000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06-10-26	국보			영등포교 3413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06-10-24	국보			서울교 109	미결
김양호	재야	민주노동당(대전)	한미FTA반대 집회(11.22)	07-01-03	집시,폭력			대전교 1911	미결
강순정	재야	전범민련	회합통신	06-11-28	국보			서울교 197	미결
이용석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8-18	병역법	1년6월	2008/02	수원교 316	기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5-17	병역법	1년8월	2008/01	군신교 1215	기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치사	2년6월	2007/12	목포교 22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6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김혁영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3년	2008/06	홍성교 200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치사	3년	2008/06	안동교 15	기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3년	2008/06	경주교 500	기결
유현미	재야	전철연(웅산)	강제철회반대	06-12-20	업방	4월	항소중	영등포교 4243	미결
오정목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교 103	기결
김도형	재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1-26	병역법	1년6월		영등포교 2479	기결
정현우	재야	한미FTA저지대전충남본부	한미FTA반대 집회(11.22)	07-01-03	집시,폭력			대전교 2050	미결
유병문	학생	고려대	한총련 불탈퇴(137)	07-02-24	국보집시			인천교 1706	미결
송인옥	학생	서울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11-23	병역법	1년6월	2008/05	영등포교 2616	기결
박경수	학생	성공회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12-14	병역법	1년6월		성동교 1974	미결
고동주	학생	카톨릭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9-21	병역법	1년6월	2008/02	영등포교 2437	기결

01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이 'RSQ 전쟁연습 중단 촉구, 2007년 반미반전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의 대회사, 김은진 민주노동당최고위원 등 결의 발언과 한청회원과 반미여성회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회 중에 전쟁연습 웬말이냐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로써 집회를 마무리했다.

종로구청 뒤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공동으로 '군국주의 일본규탄 대북제재해제 3.1절 8주년 기념 민족 자주결의대회'를 열었다. 한상열통일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한청 박희진부회장 민주노동당 김은진 회고의원 등 결의발언과 도움중고급학교 한현 주학생의 편지를 덕성여대 김희정 학생이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과거사 반성없이 군국주의 획책하는 일본우익과 정부당국에 맞설 것·재일민족 학교 및 총련 동포들에 대한 일본우익과 정부당국의 광란적인 인권 유린과 탄압을 분쇄할 것·일본정부의 대북제재 중단 북·일관계개선 등을 촉구하고 이어 일본군국주의 상징 '육일승천기'를 불태우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88주년을 맞은 3.1절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고 윤장호 병장의 죽음을 추모하고 아프간·이라크 한국군의 즉각 철군을 촉구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점령과 학살이 종식되고 한국 파병 군대가 철수할 때에만 또 다른 비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 윤장호 병장의 회생을 애도하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점령 종식과 한국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신문은 1일 3.1운동 88돌을 맞아 민족 공조로 외세에 맞설 것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신문은 이날 기념 사실을 통해 "지금 외세의 대조선(대북) 침략과 반통일 책동이 매우 발악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미국의 대조선 지배전략,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견결히 반대해 나서야 한다"면서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다. 노동신문은 3.1운동을 '3.1 인민봉기'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외세의 지배와 식민지 폭압을 용납하지 않고 목숨 바쳐 항거하는 우리 민족의 높은 자주 정신과 애국적 기개,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장거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하다.

광화문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남측위 청학본부)는 '재일동포 탄압 일본당국 규탄 남북해외 청년학생 공동집회'를 한다. 6.15남측위 청학본부 박범수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홍성규 위원장, 한충현 류선민 총학생회장 등은 결의문에서 "재일동포들의 힘겨운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남북해외 청년학생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3.1절을 맞아 청년학생이 결심해서 일 당국에 의한 재일동포의 핍박과 탄압을 막아내자"며 "행동과 실천으로 자주통일의 진군길로 매진하자"고 호소하다.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문을 마친다.

02

국회 통일외교통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7차방위비 분담특별협정안을 14대2(권영길, 김원웅)법안심사 소위원회안을 통과시키다. 지난 2.27일 통일외교통사위소위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제안 항목을 달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와 관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회정문 앞에서 '17차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거부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지난 2.27부터 3.1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종결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다. 1.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이익에 맞게 높은 단계를 발전시킨다. 2. 남북은 코리아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이룩된 합의이행에 공동노력한다. 3. 남과 북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차원에서 6.15와 8.15민족통일대축전을 평양과 서울에서 진행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협력 사업재개와 이산가족문제에서 실질적 해결에 노력한다. 가)제 5차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27~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5월 초에 금강산에서 실시한다. 나)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조기 추진한다. 다)제8차 적십자회담을 4.10일~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 등 상호관심사항을 협력해결한다. 5. 남북은 민족공동발전을 위한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나간다. 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18~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나)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상반기 안에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한다. 다)개성공단 활성화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간다. 6.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29 6.1일까지 서울에서 연다.

03

종로구 조계사에서 6월민주항쟁 20년사업 불교추진위원회(상임대표 명진, 여익구)가 주최하는 '박종철 열사 49재의 20주년 기념 추모제'가 열린다. 함세웅신부의 추모사 낭독에 이어 박영사의 아버지 박정기(78)씨, 어머니 정차순씨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원, 민생정 치준비모임 천전배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문화행사에서는 안치환, 아단법석, 꽃다지, 불교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공연하다. 함세웅 신부는 "1987년 독재정권을 타파하기 위해 전국에서 외쳤던 민중의 함성이 다시 한번 재현돼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종로1가까지 영정을 들고 행진한 참가자들은 종로1가에서 "열사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완성하자"를 외치며 '6월의 민주함성, 상생과 희망의 미래로...'라고 쓰인 풍선을 하늘에 띄어 올린다.

일본 도쿄 '히비야' 아회음악당에서 7000여 재일동포들이 함께하여 '3.1인민봉기 88주년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을 반대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총양대회'를 열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련의 각급기관장들을 도쿄인근 거주동포들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조선학교고등학생들이 함께하다.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의 사전 문예공연에 이어 남승우 총련 부의장의 집회보고, 총련도쿄도본부 박창길위원장, 오재세 재일조선상공연합회이사장 양옥출 재일본 조선여성동맹부위원장 김차돌 재일본조선인청년동맹총무부장 등 성토연설이 있었고 시미코 일본 전 참의원

아사노 게이치 도시사대학교수 도고이 시게루변호사 송세일 재일한국 민족통일연합 사무국장등이 연대 연설을 하다. 집회에서는 전체재일동포에 보내는 호소문과 일본정부에 보내는 항의문을 채택 낭독하였음. 집회를 마치고 일본정부의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다.

04

2.13합의에 따라 조미관계정상화 워킹그룹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이북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존 루이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교수 지그프리드 해거 전미국립핵연구소장 등이 함께한 NGO대표들과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고 2일 뉴욕으로 이동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찰스 커트만 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들을 만났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5일부터 열리는 김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간의 조미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는 조선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해제, 미국의 대북자산동결해제, 방코델타아시아의 동결된 북 계좌해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날 제 10기 1차 중앙위원회총회를 열고 이규재의장을 재선출하다. 또한 강희남 이종린 나창순 박순경 명예의장등 재추대하고 노수회 전변연 교문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다.

05

민주화운동정신시승국민연대 권오현 상임대표와 박희영 사무처장 등 집행부일꾼들은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하경철 위원장을 면담하고 명예회복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계승연대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을 촉구하다. 또한 남민전사건의 일부 보류된 부분의 빠른 심의를 촉구하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문용선부장판사)심리로 강순정 범민련 고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2차공판이 열려 검사의 직접신문이 진행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7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국회비준을 거부촉구선언참가 국회의원 정당, 사회 각계 인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민주노동당이영순의원외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가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하고 이들 비용을 삭감한 새로운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 없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미2사단이전비로의 불법전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다. 기자회견장에는 평통사 홍근수상임대표와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 등 10여명이 함께하다.

여의도 국회 맞은 편에 위치한 국민은행 앞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한우협회는 8차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5일,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농업 고위급 회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밀실협

상의 실태를 비난하고 한미 FTA에 대한 축산인들의 반대의사를 국회 앞에서 강하게 표명하겠다”고 밝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한미 쇠고기 옛 조각 협상과 축산인을 내어주려는 퍼주기식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은 국내 농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소비자의 안전까지 내어주는 굴욕적 외교의 표본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다.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원회) 정기공동대표자 회의 및 기념식’을 열다. 대표자회의에서 성원보고와 전회의록 보고에 이어 심의안건으로 6.15민중공동행사의 대표단구성건의, 2006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규약개정안임원선출안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대일특별결의문 등을 채택하다.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등 축사 민족축패 ‘출’의 축하공연 등이 있었음

06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대학생들은 ‘대북 전쟁연습 RSOI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준모 경시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2.13합의 이후에도 RSOI 전쟁연습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준비되고 있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다. 또한 ▲한미당국은 대북 선제공격, 전면전쟁계획을 숙지하기 위한 RSOI 훈련, 대규모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 ▲한미당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2.13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막아내는 반전평화운동에 300만 대학생들이 적극 나설 것 등의 요구와 의지를 밝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는 인천지검 앞에서 ‘유병문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을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중의 평등을 위해 거친 잠자리와 허기진 일상을 마다하지 않았던 스물다섯 살 청년에게 검찰이 말하는 정의의 대가가 정녕 철창이란 말인가”라고 분노를 표현하다. 또한 “수년 전의 활동을 빌미로 다시금 학생운동가에 대한 수배를 강화하는 한편, 전교조에 대한 탄압, 최근 폭로된 포스코 노동자 파업 당시의 부당개입 등 공안탄압의 칼날이 진보진영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보세력의 총연대를 통하여 수구냉전세력들의 저의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다짐하다.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 99주년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007년 5대 요구안’을 선포하다. 5대 요구안은 1.기간제 보호법 시행에 따른 해고방지를 위한 특별관리감독, 지침, 실태조사의 실시 2.고용보험법 개정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3.여성의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외주화 방지 대책 수립 4.노동조합법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5.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 보장 등이다. 또한 덧붙여 특수고용노동자의 100만 여

명 중 65%가,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노동자 중 65%가 여성이라고 밝히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법개정을 요구하다.

☞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바벨 웰)는 07년 한미전시증원연합훈련인 RSOI(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연습은 3.25-31일까지 이남전역에서 실시한다'고 공식발표하다. 이번 훈련에는 해외에서 미군 6,000여명을 비롯함 미군 29,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다. 1994년부터 실시한 RSOI 연습은 연합합동지휘권 연습이며 해외기지로 부터 미군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사의 능력을 연습 평가하기 위한 연합사와 한미 양국군의 각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실시된다.

☞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구속자노동자후원회 민주노동총 앙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원의실 등 공동으로 엠네스티선정 앙심수 감성환투쟁기록 『골리앗 삼상재발에 맞선 다윗의 투쟁』출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다. 최옥화 신세계 이마트 수지분회장사회로 권오현 앙심수후원회장의 여는 말, 임경옥씨의 경과보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단병호의원 민주노동총 주봉희 부위원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규탄 및 석방촉구 발언 한국노동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07 -----

☞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각계 사회단체는 미대사관 앞에서 2.13함의 역행하는 RSOI/FE 전쟁연습 강행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7일간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전시증원RSOI/FE 훈련강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다. 범민본 이규재의장의 여는 말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등 규탄발언 등이 있었고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RSOI/FE 훈련이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다는 점, 연습에 동원되는 장비와 병력 중 로널드 레이건 핵 항모와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라는 점을 들어 이번 전쟁 연습계획 발표는 6자회담 합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 또 "RSOI/FE 연습은 북한정권 제거와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전개된다"며 "작년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에서도 이 연습이 작전계획 5027 3단계 2부에 따른 것으로서 평양 고립을 노린 북 서해안 상륙훈련이 국방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 밝혀진 바있다"고 밝히다.

☞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75회 수용집회를 진행하다. 3.8일 세계여성의 날 99돌을 앞두고 열린 시위에서는 호주일본 등지에서도 진행되는 등 국제연대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다. 강주혜 사무처장 윤금순 전국여성연대준비위원장 등 일본 총리발언을 규탄발언이 있었음

08 -----

☞ 청와대 문수대 앞에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대표는 서울에서 제8차 한미FTA협상이 시작되는 일자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에 들어가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집중 출근선진진, 당원 10% 동원 서울 집중 집회 등 3월 한달 한미FTA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서

기로 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FTA 저지에 당운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단식투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반대 투쟁을 위해 3월 한달간 당을 비상체제로 돌입하다.

☞ 종로 탐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 654회 목요일회가 열리다. 권오현 공동대표는 여는 말과 최규화(고려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의 유병문(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구속과 면회 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들에 대한 경찰 폭력 규탄발언과 지은(경계를 넘어 활동가)의 '고윤장호하사 애도와 자이툰 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 즉각철수 촉구'와 재일동포탄압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의 망언에 대한 규탄 발언이 있었고

☞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헨리폴슨' 미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협상을 강요하는 헨리폴슨은 당장 나가라고 촉구하다. 범국민은 1997년 IMF당시 1조7천억 규모의 최대의 사기극을 벌여 당시 범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골드만 삭스 회장이었던 그가 한미FTA협상을 통해 더 큰 사기를 치려 한다고 이번 방한을 강하게 규탄하다.

☞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농민들이 소, 염소를 끌고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이날 '소몰이 투쟁'은 애초 오후 1시 서울 종로 보신각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진행되었으며,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단체 대표자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이 동참하다.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습시위를 통해 "농업 고위급 회담을 통해 뱃조각 박스만 반송키로 한 것은 한미 양국간의 수입위생 조건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양보한 것으로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처사라며 뱃조각 박스 부분반송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다.

☞ 2.13함의에 따른 조.일관계 정상화실무회의가 7~8일간 하노이 주월일 본대사관과 이북대사관에서 열렸으나일 본측의 성의없는 태도로 회의 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결렬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 용산역 5층 KTX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7년 정기 총회'를 열다. 이이화 상임의장의 인사말 강정구교수의 축사 등이 있었고 운영진 감사의 감사보고 2006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0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채택하다.

☞ 시민사회운동, 여성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정치인 등 각계각층 870명은 한미FTA 8차 협상 개시일에 즈음하여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양보 일변도의 한미FTA 협상타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 한미FTA 질주를 막아내자는 대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심상정, 권영길 의원, 오홍일 목사, 홍근수 목사, 최병모 변호사, 홍청의 서울외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장호 영화감독, 이석형 민주노동총 위원장, 전농 문경식 의장,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다. 한미FTA 저

지법국본 정책기획연구단장인 이해영 교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오충일목사 우리겨레하나되기본부의 최병모 대표 오종렬 한미 FTA 범국본 공동대표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을 참가자들은 대국민결의문을 채택하고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다.

09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범국본)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그 외의 전국 각지의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다. 범국본 측은 2006년 12월 6일과 2007년 1월 16일, 2007년 2월 12일에 발생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공개함과 동시에, 10일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FTA 반대 집회와 관련한 경찰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진정서는 “인권침해자들은 2007.3.10로 예정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역시 금지통보하고,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자들의 지휘를 받은 전국 각지의 일선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들은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노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3월 10일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하는 사람들은 출발지에서 원천봉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방침을 밝히면서 상경준단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국본은 이같은 경찰의 인권침해가 2006년 12월 6일과 2007년 1월 16일, 2007년 2월 12일에도 재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한남동 하얏트 호텔 앞에서 ‘환자권리위환위원회연호모임’, 한미FTA저지보건교대책위, 한미FTA저지재건공대위 등이 8차 한미FTA협상이 틀째를 맞아 국민부담연 2조 원 증가, 약값 폭등을 초래할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한국정부의 입장은 특허기간연장 인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실상 포기”라며 “의약품 비용의 증가는 의약품 특허기간이 최소 5년간 연장되어 특허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의약품비용 부담이 5년간 최소 7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에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무력화되면 최소한 3조 원의 추가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여기에 부실 특허비용, 처방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 등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면 추가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통신은 9일 한미연합전시지원연습(RSOI)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Foal Eagle)을 비난하면서 남한과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발언이 기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소식통의 언급을 인용,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연합전시지원연습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것은 회답이요, 관계개선이요 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말이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꾀변이고 그들은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힘에는 힘으로, 도발에는 무지비한 심밀적 타격으로 대답하는 것이 선군조선의 기상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라며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반공화국 전쟁책동이 가져올 엄청난 후과(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소동을 무조건 걷어치워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하다.

한미FTA 저지를 위해 8일 부터 청와대 앞에서 시작한 노상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문성현대표를 격려방문하다.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광동, 문동환, 백낙청, 안경호, 이하 6.15민족공동위원회)는 8-9일 중국 선양 칠보산호텔에서 올해 첫 공동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과 대일 특별성명을 발표하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보도문을 통해 올해 평양에서 열리는 6.15 민족공동행사와 남측에서 열리는 8.15 행사를 더욱 폭넓고 성대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통일운동을 일상화, 대중화하기 위해 각 부문, 계층별 단체들의 공동행사로 다양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대일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일본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총련 동포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규탄하면서 2000년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 재일동포들의 기본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단 회의는 물론 여성, 언론, 교육, 종교, 노동, 청년, 농민, 지역 등 부문별 회의도 개최했는데 이들은 작년 교류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해 확정하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부가 주최한 한미FTA 저지 2단계 제1차 총궐기대회가 경찰병력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되다. 민주노동당원 노동자농민 학생 등 흥대입구에서부터 신촌로타리 이대입구까지 행진하고 다시 독립문 동대문 등에 집결했다가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세종로로 집결한 5천여명의 참가자들은 물대포로 무장한 경찰병력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차가운 아스팔트위에 주저앉아 ‘민중의노래’ ‘농민가’ 등을 부르며 ‘망국적 FTA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다. 정광훈 오종렬 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경찰 봉쇄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오늘 하얏트 호텔 밀실에서 나라경제를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아가리에 쳐넣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타결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무효를 선언하고 전면전적인 대항쟁에 나서자.” 고 참가자들을 고무 격려하다. 6시 35분경 경찰은 경교방송과 함께 집회 대열에 난입하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깃발을 들고 있던 참가자가 연행되는 등 경찰의 저지에 격렬하게 저항하다.

10 -----

6자회담 이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0일 오전 귀국을 위해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들에게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합의사항을 개략적으로 밝혔다. 이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대북 금융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약속했다”며 “또한 북.미 양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구 교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후 베이징에 들러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디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다.

11 -----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기자회견

견을 열고 10일 FTA반대 집회등 중 시위대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다. 범국본은 경찰이 실정법상 적법절차도 무시한 채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무차별한 경찰폭력을 휘둘렀다며 연행자의 석방과 부상자의 치료비 배상과 함께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6층 밀레니엄 홀에서 민주노동당 2007년 정기 당대회 가열리다. 사전마당에 이어 내빈소개, 단식중인 문성현대표의 영상인사, 모범당원 시상식,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등 축사와 축하공연이 있었음. 이어 정기 당대회는 당성원 들만으로 안건을 심의하다. 당헌개정 2006년사업평가 및 결산감사 보고승인 2007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등이 있었음

12 -----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FTA저지범 국본대표 등 30여명은 한미 FTA 제 8차협상폐막에 즈음하여 무기한 단식투쟁돌입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공동대표 장동화 진봉부의장 등 결의발언과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퍼주기 일변도의 굴욕적인 매국협상'으로 전락하고 이에 반대하는 민중들에 공갈협박 은폐와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규탄하다. 마치고 그 자리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 중 이규재 범남본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등 결의발언이 이어지다. 한편 이와 궤를 같이하여 박석운집행위원장이 수배중 상태에서 단식에 들어갔으며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김창근 김양호 황의경 정현우 박종갑씨 등 FTA 저지투쟁과 관련 구속된 양심수들이 1일 단식에 들어가다.

13 -----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빈련, 한청, 한총련 양심수후원회 등 21개 단체는 RSM/FE(한미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 기자회견은 북측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농근맹 등 11개 단체, 해외의 재일한국인 주동일연합, 재미청년협의회, 캐나다 코리아연합회 등 32개 단체와 함께 서울, 평양, 해외에서 동시에 열리다. 이규재범남본의장의 여는 말 김종일평통사 사무처장 허영구민주노총부위원장 김홍현 전빈련의장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이승호한청의장이 남북해외공동성명을 낭독하다. 공동성명서에서는 이들은 "2.13 6자협의를 통해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평화 체제구축 등이 의제로 제출되고 미국을 비롯한 6개국들이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데 따라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화의 상대방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다. 그리고 "미국은 행동 대 행동원칙에 입각해 2.13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초기행동조치에 반하는 그 어떠한 적대행동도 벌려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남측당국에도 <한미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을 계속 추진한다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는커녕 남북관계정상화속도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다.

14 -----

☞ 포항건설노조와 대구경북건설노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등 대구교도

소에 수감된 17명의 건설 노동자가 단식에 돌입하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포항 공대위)는 2006년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진행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노동조합 사찰과 탄압 공작,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됐음에도 사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속 노동자들의 단식선택 배경을 밝히다. 이어서 포항공대위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이자 송고하기 그지없는 인간으로서의 자주성 실현이며 노동자의 자존심"이라고 밝히다. 포항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과 검경의 공인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불법 사찰과 노조 파괴 기획, 공작한 검찰 공인부의 해체 △살인진압 경찰책임자 처벌, 포항건설노조 검찰백서 관련자 파면 △구속자 석방, 포스코 출몰제한 조치 철폐 등을 촉구하다.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평택범대위 양심수후원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제 90차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여는 말 박석본 평통사 미군문제담당 등 결의발언에서 2.13합의 역행하고 대북공격연습 RSM/FE 중단과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LPP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중동패권강화를 위한 아프간 전투병 파견강요 중단 한미FTA 협상중단 등을 촉구하다.

☞ 지난 8월 사시킨 집이 경매되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계셨던 안학섭 선생님께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시기 되어 간단한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조출한 음식을 나누며 떠나심을 아쉬워 했습니다. 안선생님내외분과 만남의 집에 계신 문상봉 김영식선생님 통일광장 안희숙선생님과 민기협 조순덕선생님의장과 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안병길 이용준 임미영 권오현 등이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부신에 계시더라도 건강하시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15 -----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세실레스토랑(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프간, 이라크 한국군 즉각철수와 각계 인사들이 3.17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라고 선언하다. 여성, 문화, 시민사회 단체 등을 총 망라해 326인이 참여한 이날 선언에서는 17일로 다가온 국제반전공동행동을 정부당국이 불허한 것을 두고 통일연대 한성열 목사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는 미국의 국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3.17 집회마저 봉쇄당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대회인 3.17국제반전행동을 당장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다. 국회의원 임종인의원 평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 등은 "국익차원에서 이미 아프간에서 지난 5년간 500억을 쓰고 미국을 위해 봉사했다. 이라크까지 포함하면 5600억원의 돈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며,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며 당장 파병부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 명륜동민기협 사무실에서 민기협운영위원회와 민기협 22차 총회준비위원회 제 1차회의가 있었음. 1차모임에서는 총준위원장으로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을 호선하고 의제를 채택했으며 총회장소와 날짜를 종

로5가 기독교회관 2층이고 3.31일 오후3시로 하다. 첫날은 민가협사 입평가가있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회의실에서 '2007년 조사개시 발표기자회견'을 열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권력의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현황과 관련 진보당 조봉암사건 부일 장악회 헌납의혹사건 재일교포복송저지공작사건을 상당 수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3-14일간 평양방문을 마치고 북경에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고 '북은 금융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영변핵시설을 폐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다. IAEA 인사가 이북을 방문한 것은 2002년 12월 제2차 핵위기 때 사찰단이 추방된 이후 처음이고 IAEA 사무총장으로는 1992년 한스 볼릭스 총장 이후 15년만이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 655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이영 상임 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정은희(문화연대)의 3.10일 한미FTA저지 집회 시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발언이 있었음. 류해정(인권연대 구소 창). 소장의 동아시아 필리핀, 버마, 동티모르, 베트남, 웨스트파푸아 등 5개 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보고, Benny교수(웨스트 파푸아)님이 웨스트 파푸아의 양심수 석방과 독립을 위해 연대 촉구가있었음

평택 팽성을 내리 검문소 앞에서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대책위(상임대표이은우)'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예산낭비, 환경대란, 주민고통 미군기지 성토공사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시민들의 환경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기지공사 단축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성토공사는 LPP-용산기지지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그 자체가 위법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토공사를 중단하는 것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다.

프레스센터20층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대표단과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사이에 명예회복법시행령관련 오찬간담회를 갖다.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임조사위원, 직권재심, 해직자의 생활지원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계승연대에서는 박중기 권오현 강민조 정종렬 상임공동대표와 이병주 집행위원장 등이 보상심의 위원회에서는 하경철위원장 남상택심의위원 민주화보상지원단장이 함께 하다.

후원회 소식 제 185호 최종교정본을 기획사 참미디에 넘기다.

16

대진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판사진광철)심리로 지난해 만리포해수욕장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 훈련비대기자회견과 관련 범남본 이규재의장 등 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

다. 검찰의 직접심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관련자들은 한미상륙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헌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다. 이날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에서 "2006년도 한미군사훈련의 근거가 된 5027-04에 따른 반격전의 핵심은 한미연합해병대가 동시해안에 상륙해 제2전선을 구축하고 특전부대의 내륙침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평양을 포위하여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라고 훈련 내용의 침략성을 지적하다. 또 당시 만리포 상륙훈련의 가상상황으로 "이 훈련이 작계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당시 훈련통제관의 브리핑 내용에서 밝혀졌으며,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도 '북한군의 격멸', '북한 정권의 제거', '한반도 평화회전 조성'이라고 권영길 의원이 폭로한 '한미군사위 전략기획지침'도 인용되다. 따라서 만리포 한미상륙훈련은 헌법 제5조 1항의 평화주의 원칙, 헌법 제4조 평화통일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남북사이의 주요한 정치적 합의 및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다. 한편 이보다 앞서 범민련남측본부와 평통사는 대진법원 서산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통해 작전계획5027에 따른 RSO/FE의 불법성을 밝힐 것"이라고 전하다.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재판장에 세워야 할 것은 불법적 상륙훈련 계획을 세운 한미연합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하다.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 건물 앞에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25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지배정책 중단과 미군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범민련남측본부(의장 이규재)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미국이 우방이고 동맹국이라고 여겨온 이 땅에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정권을 뒷받침 해왔다는 것이 광주학살을 통해 드러났다"며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미국의 침략정책에 대한 민중 항거"라고 밝히다. 참가자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부산 미문화원 방화투쟁은 80년 광주학살의 배후였던 미국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의 표출이자 금기시되었던 반미투쟁의 신호탄"이라며 "미제로 이어지는 상징인 미문화원을 불태움으로써 미국의 지배주의를 폭로했다"고 평가하고 "전쟁 연습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분만에 기자회견을 마친다.

후원회 소식지 185호 발송작업 있었습니다. 문상봉선생님 조순덕 이봉주 교수영 안중원 임미영 함께했습니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RSO/FE 전쟁연습중단 촉구 한반도 평화실현 각계선언 및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 민주노동당 이석행위원장 한국 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문대골목사 민변 장경욱변호사 등 규탄발언과 한청 이승호의장의 278명 선언문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현대표 등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17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미국의 이라크침략 4주년을 규탄하는 '3.17 국제 공동반전행동' 집회를 서울역광장에서 열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다.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했다가 '인도를 이용해 서울역에서 청계광장

까지 이동한다'는 제헌적 조건을 달며 허가해주는 등 이날 집회는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약 30여 분간의 노래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진 이유때문인지, 말과 소의 탈을 쓰는 참가자·허수아비가 등장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의 선전물들이 등장하여 집회의 분위기를 달구다. 참가자들은 김경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가 낭독한 3.17국제공동반전행동결의문을 통해 1. 이라크와 아프간 점령중인 파병한국군 즉각 철수 2. 부시는 이란공격계획중단하고 3. 레비노파병을 즉각 철수할 것을 결의하다.

김계관 이북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 본회의 및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의 참석차 베이징에 도착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우리자금을 전면해제하지 않으면 영변핵시설 가동중단할 수 없다'고 못박고 고농축우라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욕을 해명하기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증거를 제시하면 해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18 -----

양심수후원회 3월 산행이 있었음. 지하철4호선 당고개역에서 14명이 모여 불암산 서북능선을 올라 제2봉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5사에서 77살에 이르는 14명 전원이 불암산정상(509미터)에 오른 후 폭포계곡으로 내려오다. 험터에서 소개시간과 최근 RSMVF 훈련 한미FTA 평택 기지관련 시사문제에 관련해 토의를 하고 내려오다 당고개역 부근에서 막걸리로 푸짐한 뒷풀이를 하다. 송세영 김재선 신현익 김호현 이병건 박미정 이호연 이호준 이은재 나순석 나민지 김래곤 이용준 권오현 함께 하다.

19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는 친일·반민족 행위 2기 1차 조사대상자 83명을 확정했다고 밝히다. 친일 진상규명위는 제임리 학살사건 당시 발인주재소 순사보로 근무했던 조희창씨,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신용희씨 등 41명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공개하고 연고가 파악된 나머지 42명은 비공개리에 직계 비속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선정 사실이 통보됐다. 공개된 인사는 일진회 기관지인 국민신보 기자 출신으로 친일신론 시사평론의 주필을 맡기도 한 언론인 김환씨, 영등포경찰서 경부였던 김윤복씨, 한일합방에 협조한 뒤 남작 지위를 받은 김영철씨와 대구 공소원 판사 김응준씨, 경성지방 재판소 판사 박민씨 등 법조인이 포함됐다. 작년의 1기 발표에 이은 2기는 대상 시기가 3.1운동 이후 중일전쟁까지는 강점 초기 일제에 협력해 귀족 작위나 중추원 관직을 받은 인물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탄압이 심해지던 시기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6월초 2기 2차 조사대상자를 선정. 정치·통치기구·경제사회·학술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한 뒤 11월 말 2기 보고서를 완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며 내년말 3기 보고서를 완성한 뒤 위원회 만료 시기가 2009년 5월말까지 1~3차 보고서를 아우른 종합보고서와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6차 6자회담이 중국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개막되다. 의장국인 중국의 우디웨이 부부장은 개막사에서 각 실무그룹의 업무진전상황을 보고 받고 <초기행동이행의 구체적절차논의> <다음 단계에서 각측이 준비하거나 취할 조치논의> 등을 전하고 김계관 북측외무성 부상은 '2.13합의 이행을 위한 6자간 신뢰관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말대 말행동대 행동원칙에 충실해야한다. 또한 방코델타아시아문제가 해결되면 영변핵활동은 중단할 것'이라고 하다. 미국 힐차관보는 '각국이 60일 이내 행동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야한다'며 다음 단계조치도 협의해야한다'고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순정 교문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강교문은 공소사실 가운데 캐나다교포에 동향 등 일부 진달문건에 대해 상대가 북의 공작원이 아니고 통일운동차원에서 정세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공소내용을 반박하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전교조서울지부 최화섭 김명규전통일위원장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공판이 열린다. 검찰의 기소요지 변호인의 모두진술과 두 선생님의 모두진술이 있었음. 최병모변호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최형법정주의에 배치되며 법도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한다'고 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계시판에 올린 글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본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다. 두 선생님도 국가보안법인 인권탄압통일성을 말하며 북을 특별히 찬양고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진실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통일교육차원의 활동이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다.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한미FTA저지범 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19일에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는 대부분 미국의 요구 수용문제이며 한국측의 주된 요구는 '문지 마 타결'의 실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행각'이라고 비판하다. 또한 미국 측의 요구가 보다 강경해졌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4대 선결 조건을 미리 내주면 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결과라고 성토타다.

후원회소식지 제 185호 국내회원 1023부 해외 9부 발송했습니다.

20 -----

평화와통일을위한사람들(이하 '평통사')은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주한미군의 불법적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부동산 투자'를 규탄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 국회비준 반대와 전면 재협상,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 8천억 원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평통사의 박석분 군축담장은 발언을 통해 "작년 한미 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며 분담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해 왔고, 그 결과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06년보다 541억 원이 증액된 7천 255억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주한미군 측이 불법적으로 8천억 원을 축적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덮어둔 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을 합의했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불법적인 집행을 용인하여 막대한 열세낭비와 국익손실"이라고 정부를 규탄하다.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중국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6자회담에서 초기이행조치 이후 핵불능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불능화 논의를 위해서는 북과 관계개선을 위한 미국의 행동계획도 함께 토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초기조치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면 그때에 가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실천할 행동계획도 동시에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르면 조선의 비핵화 공약만이 일방적으로 논의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2.13합의에는 조선이 취하게 될 비핵화의 초기조치와 함께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서 조선과의 양자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과정 개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의 진전 등이 명시돼 있다"며 "핵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선과 미국의 직접대화는 이번 회담기간 중에도 빈번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북한대표단이 미국과 협의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다.

☞ 국방부 권행도 주한미군기지가전사업단장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기지가전사업에 대한 사실 종합계획(M.P.MasterPlan)검토결과를 발표하다. . MP에서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4조5800억원 가량으로, 평택지역공사비(건물 토목C4)가 3조6700억원 설계사업관리비용이 5300억원가량으로, 평택지역공사비 (LPP4개부대)비용으로 3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다. 여기에는 한국측이 제공하는 토지매입비 1조100억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권단장은 기지가전총비용과 미군부담의 구체적 MP내용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2.1 -----

☞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과거 자국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현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범시민규탄집회를 열다.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에 이어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과 각료회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련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히다. 정대협은 당시 고노가 담화문을 발표하여 위안소는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으며, 위안소의 설치·관리·이송에 옛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일본정부는 스스로 단 한명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과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 바 없음을 지적하고 더욱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기술을 삭제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중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며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다.

☞ 영등포 민주노총 9층 교육관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회대표자보고대회'가 열리다. 관련단체대표 등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주제로 범국민위활동보고 과거청

산관련국가기구 동향보고 범국민위 재정보고에 이어 안건으로 향후활동계획안 과거청산관련 법률제정.개정운동계획안 재심변호단인 단구성 및 운영계획안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연대 활동계획안 범국민위재정확충계획안 등을 심의확정짓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웅성장에서 한미 FTA저지범국민추진회 한미 FTA 관련 노무현대통령의 국민무시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다. 노무현대통령은 20일 '농수산물물류통공사에서 열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농업포기' 발언과 광우병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망언을 한바 있음. 10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오종렬 공동대표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회중앙회장 윤금순 전국여성연대준비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전원농경식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2.2 -----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독수리 훈련(RSOI-FE)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다. 청년학생본부는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을 공격 또는 침공할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2.13 합의를 통해서도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RSOI훈련계획 중지여부에 따라 2.13 합의 이행의 의지를 가능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9.19공동성명이나 2.13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이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이 웬 말이나!"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 명동세종호텔 3층 장미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가 열리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업무현황보고가 있었고 화해방안 등 위원들의 의견청취가 있었음 자문회의는 진실화해위원회 송기인위원장과 김동춘 김갑배 등 상임위원과 리영희 박형규 고희범 이이화 임현영 오종렬 권오현 외 자문위원 등이 함께 했음

☞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가 RSOI-FE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남구용호동 백운포 3함대내 1부두에 입항하다. 레이건호는 길이 330미터 에 F-18호 넷을 비롯 EA-63프롤러 공중조기경보기 E-2C 등 80여 전투기 전폭기를 탑재하고 있음. 이에 따라 3함대 인근에서 6.15남측위 부산본부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소속회원 4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공격훈련에 참여한 핵추진무기인 레이건호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다.

☞ 6차 6자회담 1단계회의에서 방코델타아시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서 4일간 공전을 거듭하다 이날 휴회에 들어가다.

☞ 종로 탐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 656회 목요일집회가 열리다. 권오현 공동의장 여는 말에 이어 정광훈(전국민중연대)대표의 한미 FTA의 본질에 대한 보고와 임기란 운영위원의 강순정, 전교조선생님 등 국가보안법 재판 방청 및 면회 보고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6.10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살리며 노래 '아침이슬'을 합창하고 마무리하였음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범민련 평 통사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SO+FE 훈련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는 "이 전쟁훈련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 3

☞ 용산군정부 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평택미군기지확장시설종합계획(M. P)발표관련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부의 한국부담 4조5800억원은 거짓이다.'라며 '국민속여 10조원 퍼주고 평택전쟁기지중단하라'고 촉구하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 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 규탄발언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제 18차년도 제11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총회 1차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2월활동보고와 재정 보고 안건으로 양심수후원회 19차정기총회 총회준비위원회회구성안을 심의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 19차정기총회준비위원회 제 1차준비위원회를 열다 총준위원 17명 가운데 김규철 김영옥 노중선 강정구 권오현 김호현 오성룡 이득형 임미영 등 9명 참가. 김지영 홍근수 위원의 위임으로 성원이 되어 먼저 총준위원장으로 김규철 지도위원을 호선 의결방법과 의안체택을 하다. 의안으로는 18차년도 사업평가와 결산안(9차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임원선출안 모범회원선정안 등을 확정하고 총회장소로는 '종로5가기독교회관 2층강당'으로 하고 '4월 28일 오후3시'로 하다. 안건심의에서는 18차년도 사업평가안을 검토확정하다.

☞ 서울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희원 등 약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FTA저지 언론공공성 사수를 위한 언론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다. 이준안 언론노동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언론노동 투쟁선언문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쿼터 축소,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자본제한완화, CNN을 비롯한 외국방송의 한국어방송 허용 등이 협정 체결을 위해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에 퍼주는 카드로 이용되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행진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한 후, 청와대 쪽을 바라보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하다.

2 4

☞ 명륜동 민가협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와 제 22차 총회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다 총준위에서는 양심수후원회 사업평가와 민가협 2007년 사업계획안 총회순서 및 진행 등을 확정하다.

☞ 대추리 농협창고에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평택지킴이 각지에서 온 평택지킴이대활동을 벌였던 사회 각계 400여명이 함께하여 주민대척

위 김택균 사무국장 사회로 935회 주민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등 인사말과 정태춘씨 등 들사람들(문예인들) 인사말과 노래공연 주민들에 대한 선물달 문정현신부의 소회말 평택지킴이들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참석하신 이들의 소원을 적은 종이와 갖고 있는 소중한 물건을 넣어 마지막 떠날 때 대추리에 묻기로 하다. 이 항아리에는 '후원회소식지185호'도 들어갔음 후원회에서는 장연희 이현근 김혜순 이상화 이성재 권오현 등이 함께 했음

2 5

☞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평택범대위 등 공동주최로 시민사회단체성원 700여명이 참가하여 '전쟁연습중단 평택미군기지확장정면중재협상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다.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핵항공모함을 지적하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앞에서 핵무기를 들여오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반입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한청 이승호의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지배정책과 망국적 한미 동맹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권도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다'며 한반도를 전쟁발진기지로 삼으려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3시 한미 FTA저지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시청로이동하다. 이보다 앞서 용산미군기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청 한홍범 범청학련 등 청년학생들은 'RSO전쟁연습중단 2.13합의 이행 2007 청년학생 반전평화대회'를 열다.

☞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한미 FTA 범국민주최로 '망국적인 한미FTA저지 2차범국민총궐기대회'를 열다. 오종렬 범국민공동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각계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대표 14명의 짧은 결의발언이 있었고 3.28일 촛불문화제 참가대국민호소문과 대회결의문을 채택 낭독하다. 이어 광우병 미곡소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갖고 대회를 마친다. 참가자들은 다시 을지로 종로광화문 경복궁 역 등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며 FTA 저지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다. 7시가 지나 세종로전차도를 점령 수천 명이 오늘 투쟁의 승리감 속에 민주노동이석행 위원장과 전봉 문경식의장의 결의발언으로 정리집회를 마친다.

☞ 시청앞 잔디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소속 농민 시민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FTA체결저지 민주노동당 전국당원대회가 열린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의의원 등 결의발언과 18일째 단식농성 중인 문성현대표가 최고위원 국회의원단과 함께 등단 강고한 투쟁으로 망국적인 한미FTA저지시키자'고 대표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미 연합전시중원(RSO) 연습이 시작된 25일 6차회담 차질 가능성까지 경고하면서 즉각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파괴의 장본인'이라는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조미(북미) 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차회담을 깨뜨릴 수 있는 엄청난 후과(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정세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북침전쟁 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반역행위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외세의 전쟁행위에 가담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를 즉시 견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하다.

☞ 경기도 파주군 무건리 훈련장 직천리 부근에서 무건리 주민 및 경기도 부 시민사회단체들 60여명은 <전쟁훈련 RSO 중단,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 투쟁대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2.13 합의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요즘 전쟁훈련이 웬말이며, 한미공동훈련장 확장이 웬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동석 부장은 "한미 양국이 무건리 훈련장을 비롯, 스트라이커 훈련장, 연평로드리게스 등으로 들어와 RSO훈련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다. 무건리 훈련장은 지난 1982년 주로 포격훈련을 위해 약 550만평 규모로 건설되었고 96년부터 약 600만평의 부지를 추가하여 종합전술훈련, 화생방훈련, 공병종합훈련 등을 수행하는 종합훈련장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집회가 끝난 뒤 주민들은 '평화위험 군사훈련 반대',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말뚝을 탱크가 드나드는 훈련장 입구에 다 박는 상징의식을 진행한다.

☞ 서울중앙지법합의 2부(재판장김동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일심화'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검사 최기식 이영재)는 의견에서 장민호 이정훈씨에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순정목씨에는 12년과 12년 이진강 최기영씨에는 10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하다. (관련기사보기)

2.7 -----

☞ 광호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FTA 범국민대회'가 열려 한미FTA졸속타결저지 각계선언 1000인 긴급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진행으로 오종렬 공동대표 오홍일 목사 박기완 통일문제 연구소장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환경운동연합 안병욱사무총장 등 결의발언과 전농전기화 사무총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다.

☞ 용산 국방부민원실 앞에서 평통사주최로 사회단체성원들이 함께 하는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박석분 평통학교육팀장 김종일 사무처장 공동길 미군문제팀국장 이경인 평화군축팀 부장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평화체제구축소망의 "난"에 '평화'의 영양분을 주는 상징의식과 향의서한 낭독으로 모두 마침

☞ 제 5차이산가족회상상봉이 27~28일 동안 서울직적사 본사와 지사 8곳 평양고려호텔에 마련된 화상상봉장에서 이루어지다. 화상상봉 기념으로 대한 직적사자 한완상 총재와 조선직적사자회 장재언 중앙위원장이 화상인사를 교환하다. 이날 남북은 마흔 가족이 서로 만나다.

2.8 -----

☞ 민주노동당과 전교조는 민주노동당회의실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

에 이북 관련 포스터를 올린 것과 관련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맹규 회화섭 교사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자를 처벌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의 애물단지 공안기구인 공안검찰,보안수사대 등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은 발언을 통해 "통일의 대상인 북에 대한 자료를 가진 것만으로 교사들이 아이들 걸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 법률대응과 사회문화화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1만 5천명의 교사들이 연서한 '통일교사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5,000교사선언문'이 발표되다. 선언문에서는 "6자회담 2.13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며 "과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두 번 교사들은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다.

☞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앞에서 '농업포기 막아주기 고위급협상 규탄 농축산인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11시 30분 '한미FTA반대 인권활동가 313인 선언 및 경찰폭력 불복종 선포식'이 열린다. 한미FTA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농축산인 긴급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과 FTA반대를 선언한 한나라당의원 등이 나와 한미FTA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다. 이어 열린 '한미FTA반대 인권활동가 313인 선언 및 경찰폭력 불복종 선포식'에서는 한미FTA반대의 문구가 적힌 봉투를 쓰고, 기자회견에 배치된 경찰병력 앞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수건을 퍼들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박탈과 폭력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다.

☞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한미 FTA범국민주최로 한국이 봉이나'란 주제로 '한미FTA 반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2500여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오종렬 공동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원대표 등 결의발언과 20일 하얏트호텔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 연행된 대진대학교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풀려나 인사를 했고 인천공부방 '늘불교실'초등학교 어린이 20여명의 깜짝출동 대진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의 반FTA상황극 공연 세종문화회관노조 김은정지부장의 바이올린 연주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음

☞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사령관 레이먼드 메이슨)는 경북 왜관을 캠프 캐슬 미군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 육군사전배치재고 훈련(Army Reposition Stoks-APS)을 언론에 공개하다. 메이슨사령관은 '미군이 사전배치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5곳이며 한국은 APS-4로 불린다'며 이곳에 미지원군이 도착함과 동시에 장비 탄약 등 전쟁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훈련을 한다'고 하다. 이와 관련 캠프 캐슬 앞에서는 대구 경북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북선제공격훈련RSO/FE 훈련반대 시민동의없는 패트리엇미사일부대 배치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다.

☞ 충남 태안군 민리 포해수욕장에서 RSO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RSO 훈련을 규탄하다. (관련기사보심)

29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집단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변은 오후 3시 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한 뒤 한미FTA 협상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 일산지역에 계시는 장기수선생님을 후원하는 제1차 일산모임이 일산구 후곡동 신현철선생님덕에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에서 일산에 거주하는 회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와 점심식사 후 가까운 종마장으로 가서 오랜만에 봄 향기 속에 회원들과 산책했습니다

30 -----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 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심리로 보광사 비전향장기수요역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물구속기소된 통일광장 권낙기 공동대표와 노진민씨의 첫공판이 열린다. 검찰의 기소요지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불굴의 통일애국열사라고 한 점 등을 들어 찬양 고무죄를 적용했다고 했으며 이에 관련자들은 모두진술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인륜적 도리를 다한것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의 뒷에 걸렸다'며 '현대판 부관참시를 한 패륜적 행패자들이 이 자리에 서야 할것'이라고 반박하다.
 이보다 앞서 법원 앞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주최로 '구시대적 사상검증놀음 중단 국가보안법폐지 기자회견'을 열다. 시민사회단체 성원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법남본 이규재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장 전 교조 통일위원회 박대동 정책국장 안산사랑청년회 안신정대표 등 규탄발언과 민가협 이영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서울 시청 광장에서 3000여명이 다시 모여 '한미FTA반대 촛불 문화제'를 열다. 영화인 대책위 양기현대변인 사회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영화 '동갑내기과외하기'의 김경형 감독 '혈의누' 김대승 감독 영화배우 김부선씨 등 영화인들이 나와 영화로 한미FTA의 잘못을 고발하겠다'고 결의하다. 촛불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쪽으로 이동하며 경찰의 제지를 뚫고 경복궁역까지 진출 '협상무효' '노무현 정권퇴진'을 연호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다. 자정이 가까워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다.

31 -----
 ☉ 종로5가 기독교 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 22차 정기총회가 열린다. 민가협회원과 유가협 통일광장 등 관련단체 성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전상임의장 조순덕 운영위원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인사말씀 권오현 공동의장의 오신분 소개 권낙기 통일광장대표와 김규철 범민련서울시연합의장 등 축사, 권오현 총회준비위원장의 총준위경과보고 이영상임의장의 2006년 사업 및 결산보고 권처홍감사의 감사보고를 큰 박수로 승인하다. 이어 규약개정안(지정기부금단체 규정 등)을 승인하고 이어 공동의장 감사사업계획안을 낭독 큰 박수로 채택하고 박희봉선생 등 민가협에 공헌을 했던 어려분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하다. 어어 이영상임의장의 인사말 유민호회원의 총회결의문 낭독을 큰 박수로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길'을 함창하고 기념촬영 후 모두 마이다.



부산감전동에 있는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범민련 부경연합과 민주노동총부산지역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150여명이 함께하여 '통일애국지사 고이상철선생 추도식'을 열다. 고인은 범민련 등 활동을 하던 중 지난 3.25일 서울FTA저지 집회에 참석하고 밤늦게 부산서면에 도착,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 중 밤 11시 50분 심장마비로 운명하셨음. 추도식에서는 가까운 옥동동지였던 한창우선생 범민련 부경연합 서상원의장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의장 민주노동 부산지역본부 최충국본부장 부산울산경남 열사회 서대회회장 부산청년회 김수철회장 등의 추도사가 있었음. 고인의 유해는 28일 발인하여 영락공원에 모셔졌음

고 이상철선생 약력

1928 경남울산출생
 1940-45 만주에서 학생시절 보냄(항일운동)
 1958-61 부산동래고등학교 교사역임
 1961-67 부산국제상사근무
 1967-81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으로 옥고

1988~ 부산민자총활동
 1995 범민련부산연합활동
 1999-2005 범민련 부경연합운영위원
 2007-3.25 23시50분 한미FTA저지투쟁하고 귀가중 심장마비로 운명하심